

IV. 한·미 FTA와 경제구조

1. 한·미 FTA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 목 차 >

- 가. 서 론
- 나. 국내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
 - 1) 산업 일반
 - 2) 제조업
 - 3) 서비스업
 - 4) 농업
- 다. 중국의 부상과 우리나라 산업구조
 - 1)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의 추이
 - 2) 한·중 간 교역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
- 라. 능동적 개방화 전략으로서의 한·미 FTA
 - 1) 한·미 FTA의 기대효과
 - 2) 한·미 FTA와 산업구조 고도화
 - 3) 한·미 FTA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평가
- 마. 결 론

가. 서 론

- 최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생산기반에 바탕을 둔 공산품 수출위주의 기존 경제성장 전략은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한계점을 노출
 - 수출시장에서 저임금을 활용한 후발개도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이와 동시에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이 중국 등 해외로 급속히 이전되면서 국내 생산기반의 공동화 우려 고조

- 제조업의 단순 생산기능이 후발개도국으로 이전되면서 경쟁우위 핵심부문을 IT, 부품·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종 및 금융, 통신, 사업서비스 등 지식기반 서비스 활동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¹⁾

□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IT 및 자동차 산업의 약진 등에 힘입어 고기술·고부가가치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나, 부품·소재·기계 등 핵심 중간재 부문이 여전히 취약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외 수입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보임

- 이에 따라, IT,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상품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위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이 시현되고 있는 바, 부품소재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

□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1인당 부가가치 창출도가 낮은 영세·저생산성 구조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등 제조업과의 전·후방 연관관계가 높은 지식기반 서비스의 비중이 낮아 제조업의 혁신능력 제고에 제약 요소로 작용

- 대내적으로 고용의 탈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서비스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도화 필요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음

□ 중국경제의 부상 및 이에 따른 대외 통상환경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수적인 전제조건

- 최근 중국의 산업구조는 IT산업의 비중 증대, 노동집약적 저기술 제품의 수출 비중 감소 등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속도가 빨라 우리에게서 커다란 위협요소

1) 사업서비스란 “가치연쇄상에서 중간투입물로 활용되어 기업의 품질향상과 혁신에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 (OECD, 2001). 사업서비스에는 기계용품 임대, 연구개발, 컴퓨터관련 서비스, 법률, 회계, 경영 컨설팅, 엔지니어링, 광고, 디자인, 마케팅 등을 포함

- 한국의 대중 수출의 70%가 중국의 수출품에 필요한 부품·반제품들이며, 이에 중국의 해외수출과 한국의 대중수출은 수년전부터 동조현상을 보이는 등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은 수직적이면서 상호 보완성이 높은 교역구조 유지
 - 중국의 빠른 산업구조 고도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한·중 간 보완적 교역구조를 지속하면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 배양,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식 집약적 서비스 육성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상에서 논의한 중국의 부상, 제조업 공동화, 고용의 탈공업화, 고부가가치 서비스활동의 중요성 증가 등 국내외 경제환경 여건 변화를 고려해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필요성이 높은 시점인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관건은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있음을 상기
 -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은 제조업의 혁신 및 생산 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서비스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 한·미 FTA 추진은 국내 생산활동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능동적 개방화” 전략의 일환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사료됨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추세 속에서 국내 경제주체들의 내부 혁신역량만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제조업종 및 지식 집약적 서비스 활동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
 - 중국 등 후발개도국들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통해 능동적으

로 국제분업체제에 참여하여 경쟁력 제고에 노력 중인 현실을 고려할 때, 결국 우리의 경쟁 상대에는 범세계적 생산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중인 해외 유수의 다국적기업까지 포함됨을 상기할 필요

- 한·미 FTA와 같은 능동적인 개방전략의 채택을 통해 해외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혁신자원을 흡수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혁의 추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

□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경쟁·보완 구도를 고려할 때, 한·미 FTA를 통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선진화는 향후 예상되는 일본, 중국, 인도 등 경제 대국과의 FTA 체결과 세계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초석이라 평가

- 특히, 고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물류, 유통 등의 서비스 허브와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부상 가능성 확대

□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산업구조고도화의 장기적 비전 수립 및 이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FTA 협상원칙 마련을 통해 향후 추진될 주요국과의 FTA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기회로 활용

- 장기목표 설정과 원칙에 의거한 종합전략이 미흡한 채 개별 국가별로 일관성 없는 협상전략을 내놓을 경우 FTA 간의 충돌로 국제경쟁력을 오히려 저하시킨다는 점을 상기

□ 본 절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경제환경 여건의 주요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미 FTA의 추진이 우리나라 산업구조 고도화에 어떠한 의의와 기대효과를 가지는지, 그리고, 관련 정책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 봄

나. 최근 국내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

1) 산업 일반

서비스 산업의 팽창 및 고용의 탈공업화 진행

□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전체 산업생산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부문 비중이 여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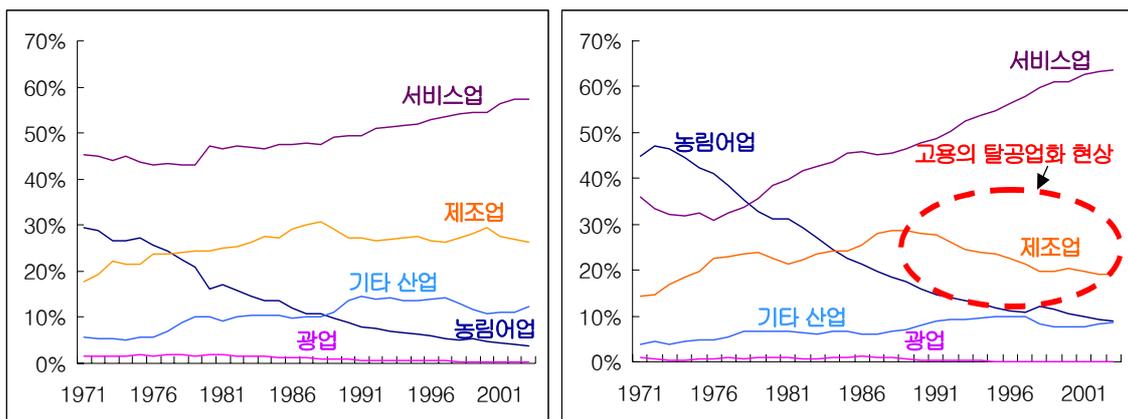
○ 전체 GDP 대비 농림어업의 부가가치 비중(경상가격 기준)은 1971년 29.6%에서 2003년 현재 3.8% 수준까지 감소한 가운데, 동기간 중 서비스업 비중은 45.4%에서 57.2%로 확대

- 제조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비중이 1988년 30.7%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최근 다소 감소하여 26-27%대를 유지 중

<그림 4-1> 산업별 대 GDP 비중 및 고용 비중 추이

(대 GDP 비중)

(고용 비중)



주: 기타 산업은 건설, 전기, 수도, 가스업 등을 포함

자료: OECD STAN database

○ 산업별 고용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1971년

36.0%에서 2003년 현재 63.5% 수준까지 증가

- 반면, 농림어업의 고용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최근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빠르게 하락('88년 29.4% → '03년 19.1%) 하는 고용의 탈공업화 현상(de-industrialization)이 진행 중

□ 우리나라는 2003년 현재 G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8%, 서비스업과 광공업이 각각 57.2%와 26.8%, 그리고 기타 산업이 12.2%로서 산업구조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초기 단계

<표 4-1> 소득수준별 산업구성비 추이

산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고소득 국가군 (high-income countries)						
농림어업	3.7	3.2	2.7	2.3	1.9	1.9 ¹⁾
서비스업	58.6	61.7	64.6	67.7	69.9	71.1 ¹⁾
광공업 및 기타 산업 ²⁾ (제조업)	37.6 (NA)	35.2 (NA)	32.8 (21.5)	30.0 (20.6)	28.2 (19.1)	27.0 ¹⁾ (18.0) ¹⁾
중간소득 국가군 (middle-income countries)						
농림어업	17.9	17.1	15.5	12.5	10.3	10.0
서비스업	41.0	43.3	45.8	50.0	53.3	55.8
광공업 및 기타 산업 (제조업)	41.0 (27.1)	39.6 (26.4)	38.7 (24.5)	37.5 (24.3)	35.4 (22.6)	34.1 (23.8)
저소득 국가군 (low-income countries)						
농림어업	36.4	34.0	32.2	29.9	27.5	23.0
서비스업	39.2	41.1	41.5	43.3	46.3	51.5
광공업 및 기타 산업 (제조업)	24.4 (14.8)	24.8 (15.2)	26.3 (15.3)	26.8 (15.7)	26.2 (14.2)	25.2 (14.5)

주: 1) 2001년 기준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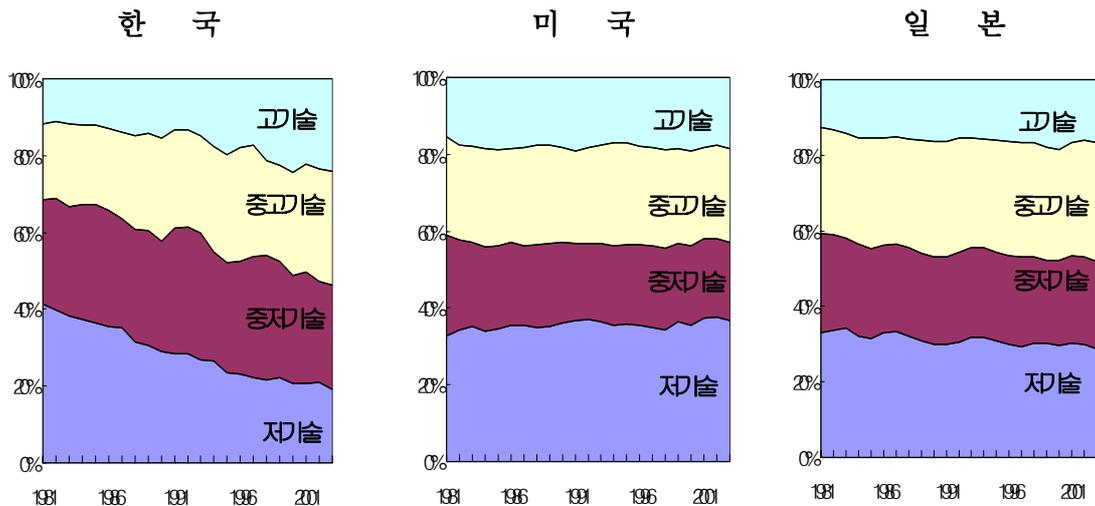
2) 제조업

제조업 내 고기술·고부가가치화의 빠른 진전

- 최근 우리나라는 제조업 생산 중 고기술 및 중고기술 산업군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추세

- IT 및 자동차 산업의 약진, 노동집약적 저기술제품에 대한 수출 의존도 감소 등에 힘입어 고기술 및 중고기술 산업군의 비중이 1981년 31.3%에서 2003년 현재 51.7% 수준으로 확대
- 2003년 현재 우리나라 고기술 산업군의 비중(23.3%)은 미국(18.6%), 일본(16.8%), 영국(15.6%) 등 주요 선진국들을 모두 초과하는 수준으로서 이는 우리나라의 빠른 산업구조 변화 추이를 방증
 - 중고기술 산업군(28.4%)의 경우 일본(31.3%)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미국(24.2%)나 영국(24.6%)보다는 높은 비중

<그림 4-2> 제조업 대비 기술수준 산업군별 부가가치 비중



주: 기술수준별 산업군의 분류는 별첨 1을 참조 바람

자료: OECD STAN database

고기술 산업군	중고기술 산업군	중저기술 산업군	저기술 산업군
전자산업 영·음향 및 통신장비 컴퓨터 장비 및 사무용품 항공기 제조업 (의약품) (의료·정밀·광학도구 등)	석유화학 비전기·전기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제품 선박제조업	음식료품 섬유·의류·모피제품 가죽·가방·신발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목제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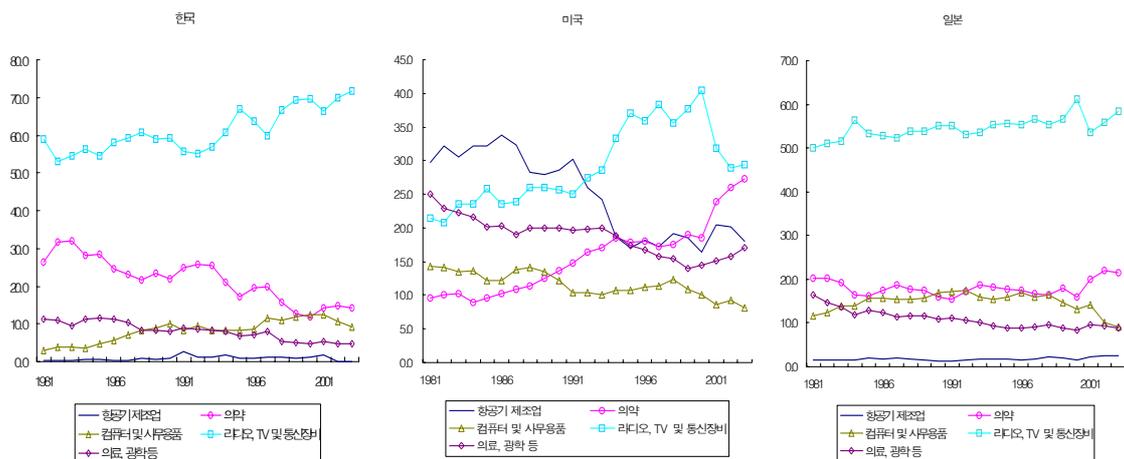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고기술·고부가가치화는 통신장비, 반도체 등 IT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 중

○ 2003년 현재 전체 고기술 산업군 대비 IT 및 전자제품의 생산액 비중은 71.8%에 달하고 있으며, 의약품과 컴퓨터·사무용품이 각각 14.1%와 9.3%를 차지

- 미국은 1990년대 초반 IT 및 전자제품의 비중이 항공기 제조업을 추월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0년 초반 감소세로 반전

-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IT 및 전자제품의 생산액 비중(2003년 현재 58.3%)이 매우 높으며, 그 다음이 의약(21.4%) 등의 순

< 그림 4-3 > 고기술 세부산업별 생산액 구성비(전체 고기술업종 대비)



자료: OECD STAN database

핵심자본재의 높은 대외 의존구조는 고용 없는 성장의 주요 원인

□ 이러한 제조업의 고기술·고부가가치화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기계 등 핵심중간재 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출의 국내생산과 고용에의 파급효과가 낮은 실정

○ 주력상품의 수출 호조에에도 불구하고 핵심부품·소재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 때문에 수출의 국내 소득/고용창출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이 90년 중반 이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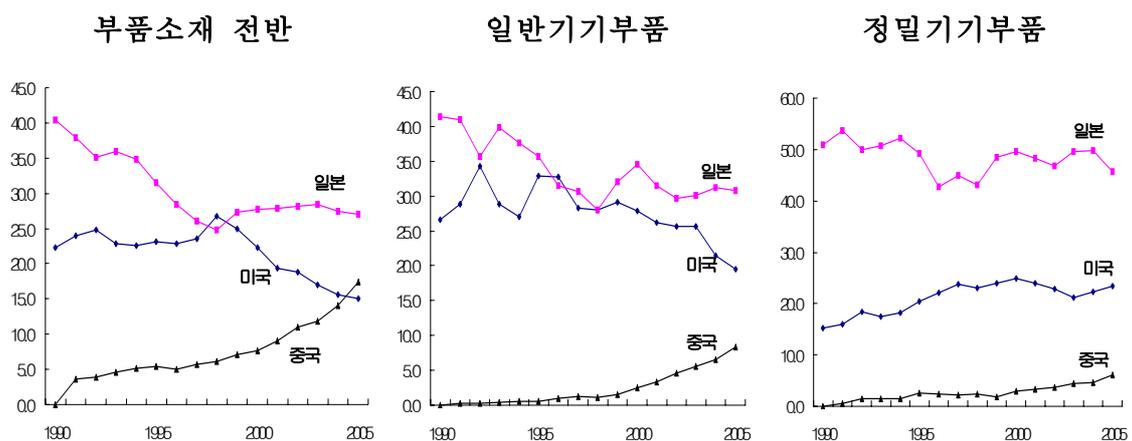
< 표 4-2 > 주요 디지털 기기의 국산화율 현황

제품명	국산화율
MP3 플레이어	82%
PDP TV	80%
유럽통화방식(GSM) 휴대전화	67%
디지털 카메라	51%
디지털 캠코더	37%

자료: 전자부품연구원 (2006)

- 국내업체들은 주요 기기 핵심부품의 수입선을 대다수 일본 업체로 삼고 있어 부품소재부문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실정인 바, '00-'05년 대일무역적자 중 부품·소재산업이 전체의 76%를 차지
- 부품소재 전반의 대일 의존도는 컴퓨터 및 사무기기 부품 관련 대중국 수입이 늘어나면서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가 90년대 말 이후 소폭 증가 상태

< 그림 4-4 > 우리나라의 미·일·중에 대한 수입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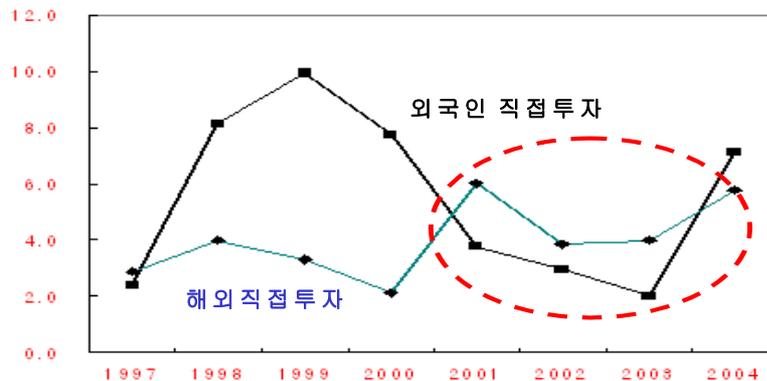


자료: UNCTAD, COMTRADE database

제조업 공동화 논의의 대두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생산기반에 바탕을 둔 기존의 수출전략은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한계점 노출
 - 수출시장에서 저임금을 활용한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이와 동시에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이 해외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는 추세
 - 최근 국내 설비투자의 부진이 가시화되고 국내기업의 제조업 해외투자액이 국내 외국인투자액을 상회하면서²⁾ 국내 생산기반의 공동화 우려 고조

< 그림 4-5 > 우리나라 제조업 직접투자 최근 추이(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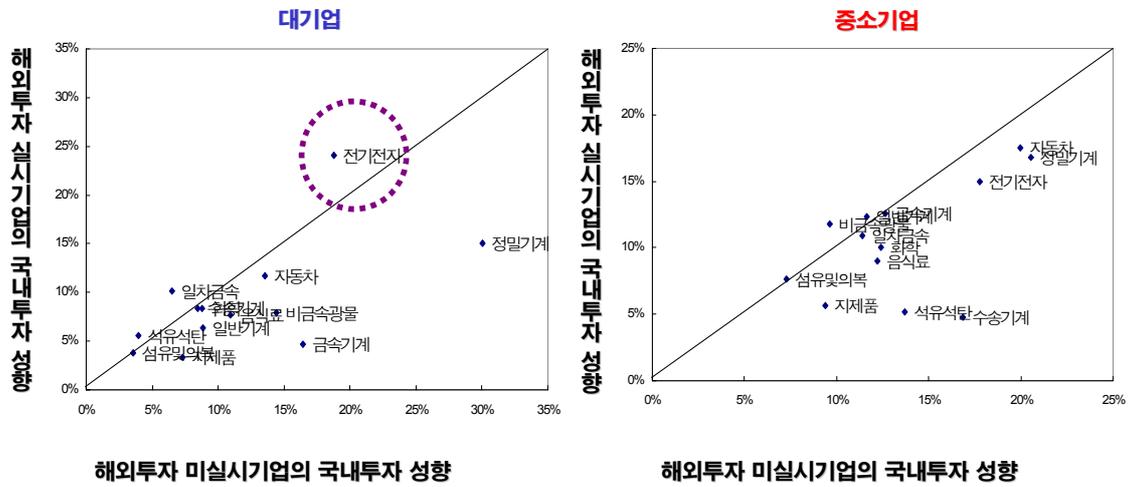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 및 산업자원부, “외국인 투자동향”

- KDI(2005)의 한 연구결과는 해외직접투자의 국내투자 구축효과가 부분적으로 시현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
 - 전기전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해외직접투자 실시기업의 국내 설비투자 성향이 미실시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

2) 2004년 외국인투자 증가는 조세감면 기간 축소에 따른 연도말 투자신고 집중에 일부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2005년 상반기에는 다시 감소세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4-6 > 업종별·규모별 국내 설비투자 성향



자료: KDI 내부자료

- 노동집약적 저기술 업종이 최근 제조업 전반의 고용감소 주요인이라는 점도 동 업종 내 해외투자 증가와 연관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음
- 노동집약형 저기술 업종은 '92-94년과 '01-03년 기간 중 섬유, 의류, 신발, 목재 등을 중심으로 각각 2.1%와 4.1%의 고용 감소를 경험

< 표 4-3 > 기술수준 산업군별 고용증가율 추이 (%)

		1992-96년 기간	2001-03년 기간
고기술	전체	2.1	4.1
	대기업	2.3	1.5
	중소기업	1.8	6.3
중고기술	전체	4.3	3.1
	대기업	2.8	0.8
	중소기업	5.3	3.9
중저기술	전체	3.7	3.2
	대기업	0.7	-4.1
	중소기업	5.0	5.5
저기술	전체	-3.5	-2.1
	대기업	-11.3	-4.6
	중소기업	-1.1	-1.8

주: 광공업통계를 이용하여 계산

자료: KDI 내부자료

3) 서비스업

OECD 국가들은 지식집약 서비스업의 빠른 성장세 시현 중

- 현재 OECD국가들 내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업 비중은 전체 경제활동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75-80% 수준으로 수렴하면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서비스업 비중의 증가현상은 소득증대에 따른 최종 소비수요의 증가, 핵심역량의 선택 및 집중에서 오는 제조업 기업들로부터의 서비스관련 활동의 아웃소싱 증가, IT산업의 발전 등을 반영
 - 서비스업은 과거 생산성 증가율이 낮고 혁신활동이 미진한 분야로 인식되었으나, 근래에는 유통, 통신, 금융 등 지식집약적 서비스산업에서 빠른 성장이 관측되는 등 경제성장의 주요한 원동력으로 재인식
 - 특히, 최근의 OECD 국가들의 서비스업 팽창은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등 사업관련 서비스의 고성장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OECD, 2005)
 - 제조업의 지식집약화/서비스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제조업체 내부에서 수행되는 고급 서비스활동이 증가하는 동시에 서비스를 시장에서 조달하려는 서비스의 외주화도 동시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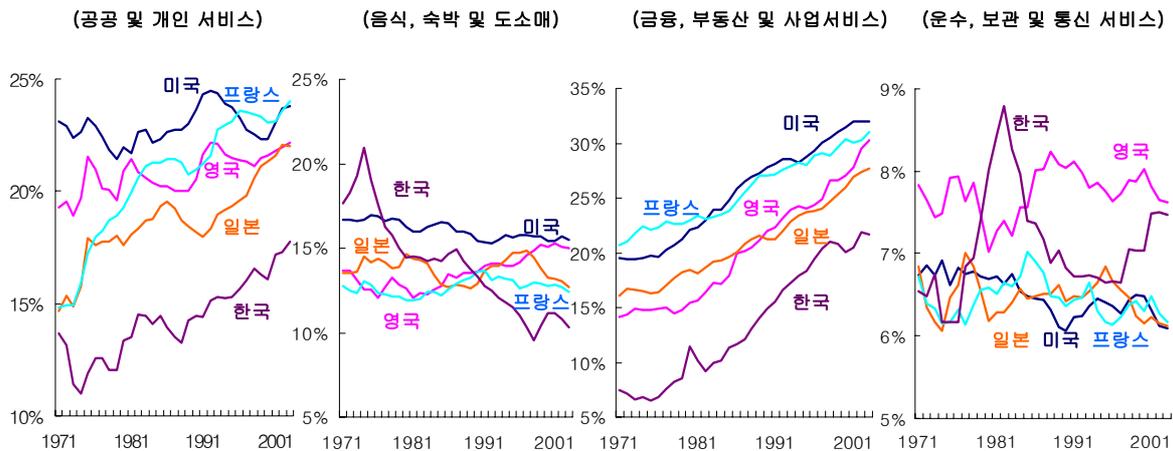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1인당 부가가치 창출도가 낮은 저생산성 구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지속적인 양적 증가를 보여 2003년 현재 경상가격으로 우리나라 GDP의 57.2%, 고용의

63.5%를 차지

- 세부업종별 부가가치 비중으로 볼 때, 소득탄력성이 높은 공공 및 개인 서비스, 금융 및 지식기반 서비스의 핵심인 사업서비스 등의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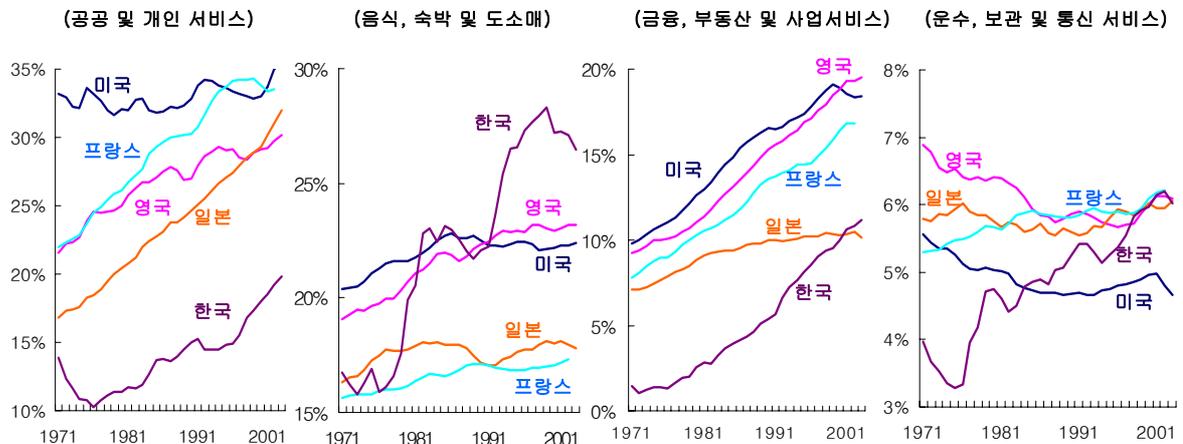
<그림 4-7> 서비스업 업종별 대 GDP 비중 (%)



자료: OECD, STAN database

- 업종별 고용비중으로 볼 때,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업 등의 고용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높음

<그림 4-8> 서비스업 주요 업종별 전체 취업자수 대비 고용 비중(%)



자료: OECD, STAN database

- 서비스업종 중 OECD 모든 국가에 걸쳐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부문인 사업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고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고용수준은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

□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영세적 구조와 저생산성 해소는 중장기적 산업구조 고도화에 커다란 당면과제

- OECD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 수준을 고려해볼 때, 서비스업 고용비중 면에서는 적절한 수준이나 1인당 부가가치 창출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 부분별 노동생산성 수준과 고용 증가(1990~2001년)

		농림어업	제조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서비스
한국	생산성	35	100	62	106	68
	고용	-3.54	-1.42	-5.05	-0.24	4.13
일본	생산성	23	100	71	120	96
	고용	-2.91	-1.84	-2.47	-1.54	1.33
미국	생산성	51	100	76	117	77
	고용	0.73	-0.76	-1.29	na	1.76

주: 생산성수준은 일인당 부가가치로서 기간평균하여 제조업 대비 상대지수(제조업=100) 로 나타낸 것이며, 고용증가율은 연평균 성장률(%).

자료: KDI(2005), “서비스산업의 구조혁신 전략에 관한 연구”

- 특히, 서비스업의 구조적 영세성은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간의 연관관계를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기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저하³⁾

-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등 지식기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IT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종과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음

3)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부문에 대한 제조업 생산품의 투입비중은 1995년과 2000년에 각각 7.0%와 8.0%로 OECD 국가들(10.6%)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4) 농업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규모별 양극화의 심화

-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고령화 추세는 지속되어 2004년 현재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40.3%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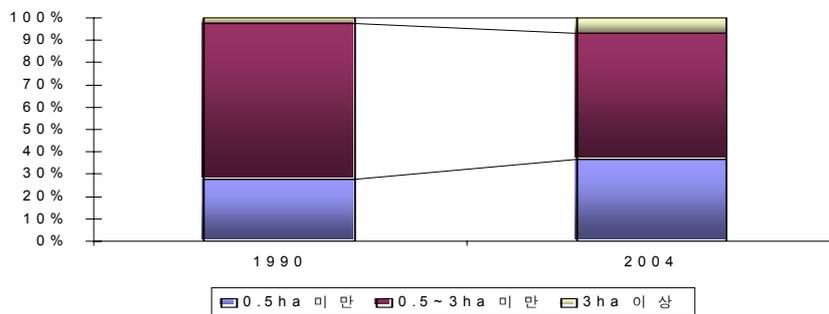
<표 4-5> 농업·농촌 인구 변화 추이

	'95	'00	'02	'03	'04
농가인구(천명)	4,851	4,031	3,591	3,530	3,415
(인구감소)	-	(820)	(440)	(610)	(115)
- 60세 이상 비율	25.9	33.1	38.2	39.0	40.3
- 65세 이상 비율	16.2	21.7	26.2	27.8	29.4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중규모 농가 비중은 감소하고 전업농과 영세농으로 양극화 추세 (2004년 호당 경지면적은 1.48ha에 불과)
 - 전체 농가중 0.5ha 미만 농가비중은 1990년 28%에서 2004년 37%로 증가한 반면, 3ha 이상 농가 비중은 3%에서 7%로 확대
 - 3ha 이상 농가수는 1990년 44,000호에서 2004년 82,000호로 증가

<그림 4-9> 경지규모별 농가비중 변화



- 농가소득의 정체로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 도·농간 소득격차가 계속 확대되어 2004년 현재 농가소득은 도

시근로가 가구 소득의 77.6%에 불과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95년 이후 연평균 5.4%씩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은 동 기간 중 3.2% 증가

<표 4-6> 도·농간 소득격차 추이

(단위: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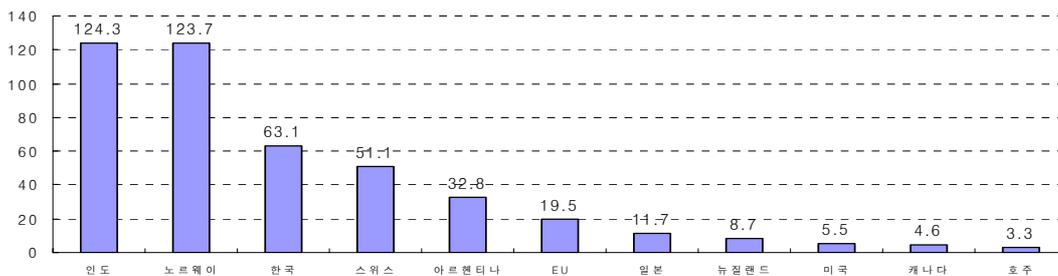
	'95	'97	'00	'03	'04
□ 소득격차(B/A)	95.1	85.4	80.6	76.2	77.6
○ 도시근로자(A)	22,933	27,488	28,643	35,280	37,360
○ 농가소득(B)	21,803	23,488	23,072	26,878	29,001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부문의 대외 개방도는 아직 낮은 편

- 농산물 시장의 대외개방 수준은 농업선진국은 물론 일부 개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서 2005년 평균 양허 관세율은 63.1%이며 500% 이상의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도 46개
- UR 협상 등으로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은 1995년 94.5%에서 2004년 98.9%로 확대
- 쌀의 경우 UR 협상 당시 얻은 관세화유예를 '05~'14년까지 10년간 재연장하되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05년 22.5만톤('88~'90 소비량의 4.4%)에서 '14년 40.8만톤(7.96%)까지 매년 균등 상승

<그림 4-10> 주요국 농산물 관세수준



주) 양허관세율 기준 (2005년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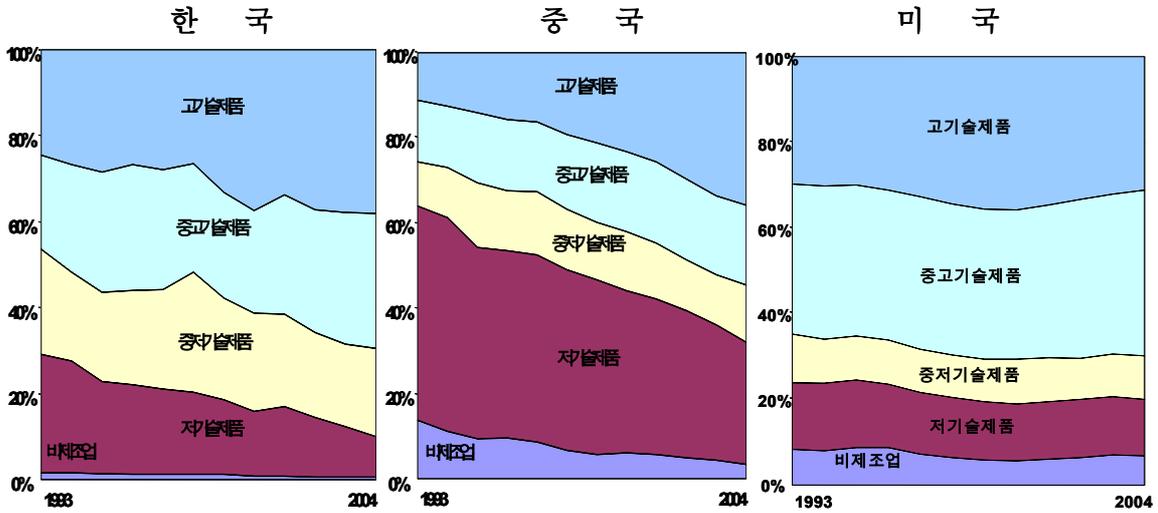
다. 중국의 부상과 우리나라 산업구조

1)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중국은 제조업의 고기술·고부가가치화가 매우 급속히 진행 중

- 중국의 고성장 및 이에 수반된 수출·산업구조의 고도화는 최근 우리를 둘러싼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한 요인임
 -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은 역내 교역 및 경제협력 규모가 급격히 확장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부상하면서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를 제공
 - 반면, 중국은 IT산업의 비중 증대, 노동집약적 저기술제품에 대한 수출의존도 감소 등 한국의 구조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그 속도에 있어서는 훨씬 급진적이어서 우리에게 는 차후 국제경쟁력에 커다란 위협요소로 작용 가능
- 중국과 우리나라의 제조업 구조변화의 유사성은 기술수준 산업별 수출구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확인 가능(그림 4-11 참조)
 - 현재 중국은 대세계 수출에서 고기술 산업군의 약진이 매우 두드러지며, 구조변화가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게 진행 중
 - 중고기술제품의 경우에는 한국의 수출비중이 중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 유지
 -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상당기간 이전에 고기술 및 중고기술 제품 위주의 수출구조 구축 및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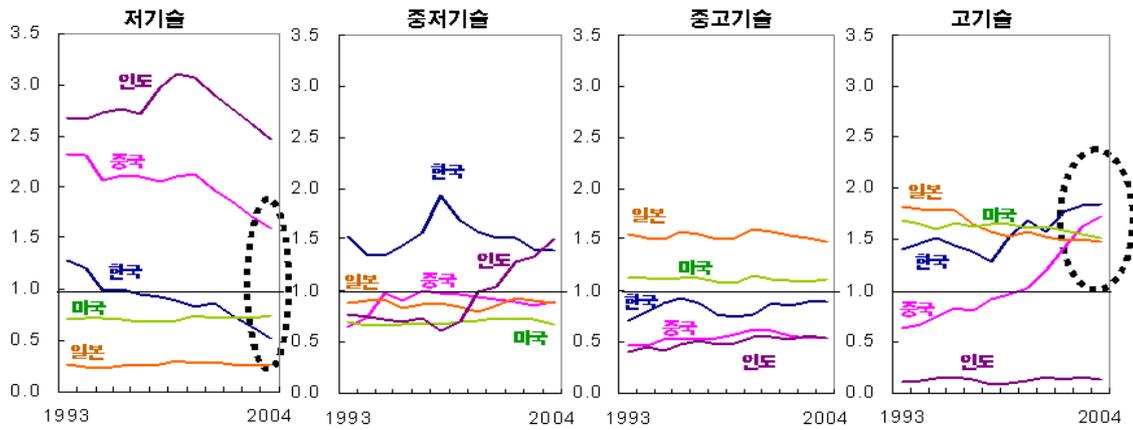
<그림 4-11> 총수출액 대비 기술수준 산업군별 수출비중 추이



자료: KDI 내부 자료

- 고기술 분야에서의 중국의 약진은 산업별 대세계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RCA지수(현시비교우위지수: 특정국의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을 특정국의 세계시장 점유율로 나눈 값)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우리나라의 경우 1989-2004년 기간동안 농업, 임업 및 저기술 제조업에서 비교우위가 쇠퇴하고 있는 반면, 중고기술 이상의 산업군에서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섬유, 음식료품, 목재 등 저기술 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자산업, 통신장비, 사무용·컴퓨터 장비 등의 약진에 힘입어 고기술산업군의 비교우위가 빠르게 상승 중임.
 - 중국도 최근 저기술산업에서의 비교우위가 감소하고, 고기술산업에서 급속히 비교우위가 상승하는 반면, 미국, 일본 등의 수출 경쟁력구조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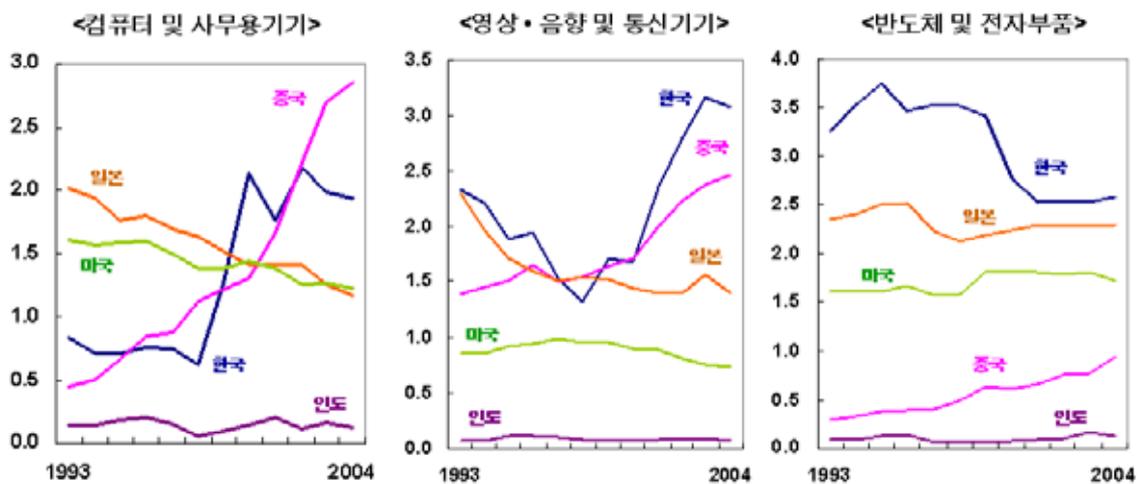
< 그림 4-12 > 기술수준별 주요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 변화 추이



□ 고기술 산업의 주요 제품별 대세계 경쟁력을 살펴보면, 중국의 비교우위 확보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음

- 중국은 컴퓨터 및 사무용품 (1993년 0.44 → 2004년 2.85),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 (1993년 1.39 → 2004년 2.47)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반도체 및 전자부품 (1993년 0.29 → 2004년 0.94)도 비교우위로의 전환에 매우 근접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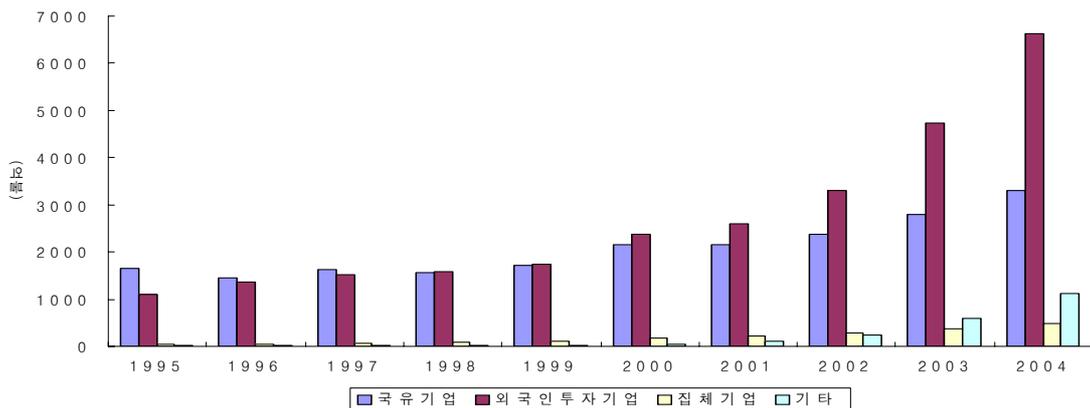
<그림 4-13> 고기술 산업 주요 제품의 현시비교우위지수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가 중국 산업고도화의 핵심요인

- 중국이 고기술 산업군에서 급속히 경쟁력을 획득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내수 및 생산비용 상의 이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해외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국내에 유치한 결과로 평가(Gaulier et al., 2005 등)
 - 중국기업에 비해 대폭 낮은 법인세율을 외국기업에 적용(33% vs 14-15%)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에 노력
 - 이러한 해외자본 유치 노력에 힘입어, 2006년 2월말 현재 중국의 총 외환보유고는 8,537억 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으로 부상 (우리나라는 2,160억 달러)
 - 중국의 대외교역에서 중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한 상승하여 2004년 현재 57.4%(수출 57%, 수입 57.8%)에 달하고 있음

<그림 4-14 > 기업형태별 중국의 대세계 교역실적 추이 (수출+수입)



자료: 중국 해관통계

- 중국은 내수시장 규모에서의 우위, 중국 내 외국 다국적기업들의 생산 네트워크 확대 등을 활용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내부 혁신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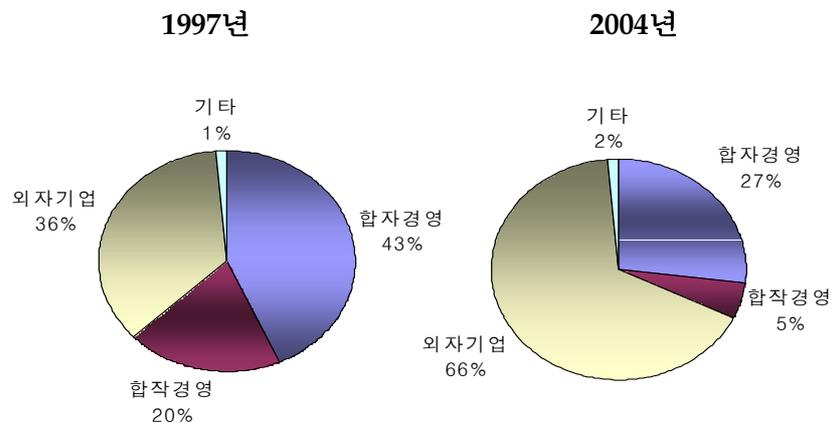
량을 빠르게 축적할 것으로 예상됨

○ 아직까지 중국내 기술집약적 제품의 생산은 저임금의 노동력을 이용한 조립가공에의 의존도가 높은 상태

- 가령, 컴퓨터·사무용품, 영상·음향·통신기기 등의 중국제품은 고 기술산업으로 분류되나, 대부분의 생산공정이 단순 노동집약적

- 외국인 직접투자기업도 합자나 합작 형태보다는 외자기업이 주류이며 그 비중도 증가 중인 바, 외국인 기업으로부터의 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이 미미하다는 내부의 비판도 고조

<그림 4-15> 기업형태별 중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



주: 직접투자 실행액 기준

○ 그러나,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도입 시 기술이전을 주요한 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도 중국 내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중국의 혁신역량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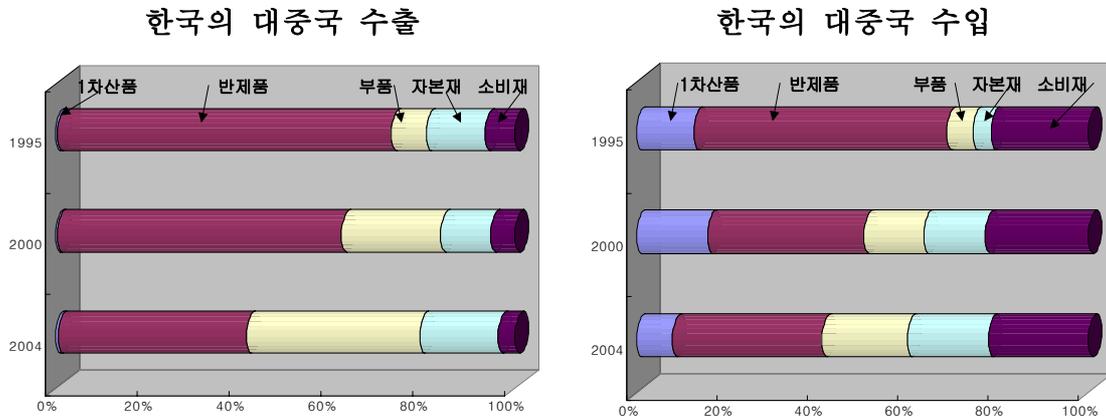
- 최근 중국은 엄청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선진국 해외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구축하기 어려운 기술 및 브랜드 파워를 확보하는데 노력 중

1) 한·중 간 교역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

수직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

- 우리나라와 중국은 수직적이면서 상호 보완성이 높은 교역구조 유지 중
 - 한국의 대중 수출의 70%가 중국의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반제품부문이며, 이에 따라 중국의 해외수출과 한국의 대중 수출은 수년전부터 동조현상을 보임
- 한국은 주로 반제품(원자재, 석유화학제품, 섬유·직물, 철강 등)이나 부품(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등)을 중국에 수출하고, 반제품과 소비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형태
 - 부품, 반제품, 자본재는 중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 일차산품 및 소비재는 중국에 대해 적자를 유지
 - 최근 양국간 교역은 반제품 중심의 구조에서 부품 및 자본재 위주로 점차 전환 중인 바, 이는 자동차 및 통신분야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현지생산 확대 등에 기인

< 그림 4-16 > 가공단계별 한·중간 수출입 구조



자료: UNCTAD, COMTRADE database

		제품명
1차산품		산업용 식음료품, 산업용 원자재, 연료 및 윤활유
중간재	반제품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자동차 차체, 가공된 연료 및 윤활유 등
	부품 및 부분품	운송장비 등 자본재 관련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	자본재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산업용 운송장비
	소비재	가정용 식음료 제품 및 반제품, 승객용 자동차,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반)내구성 및 비내구성 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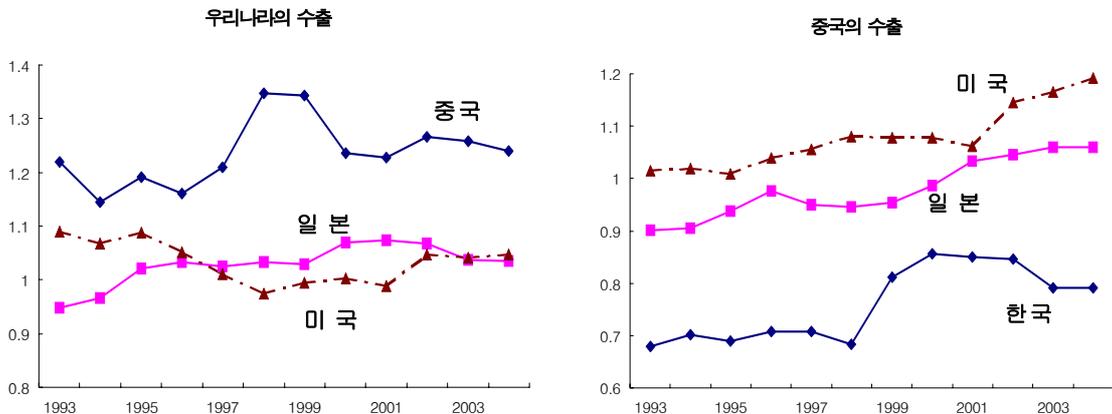
□ 상품보완도지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중·일·미 3개국의 교역구조 간의 보완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수출구조와 중국의 수입구조 간 보완성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미국, 일본 순임.⁴⁾

○ 중국과의 보완도지수는 전체 공산품 수출기준으로 1990년 1.07에서 2004년 현재 1.21로 증가한 반면, 미국 (1.08 → 0.93), 일본(0.86 → 0.84)과의 보완도는 감소

□ 양국간 보완도를 고기술 산업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

○ 한편, 중국의 수출과 우리나라 수입구조간 보완도는 미국이나 일본의 수입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그림 4-17 > 고기술 제품수출의 주요 교역국별 상품보완도지수



4) 상품보완도지수(Commodity Complementarity Index)란 상품 s에 대한 특정 국가 i의 수출특화유형이 교역상 대국 j의 수입특화구조와 얼마나 보완성을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임. 상품보완도지수가 높을수록 양국간 교역의 보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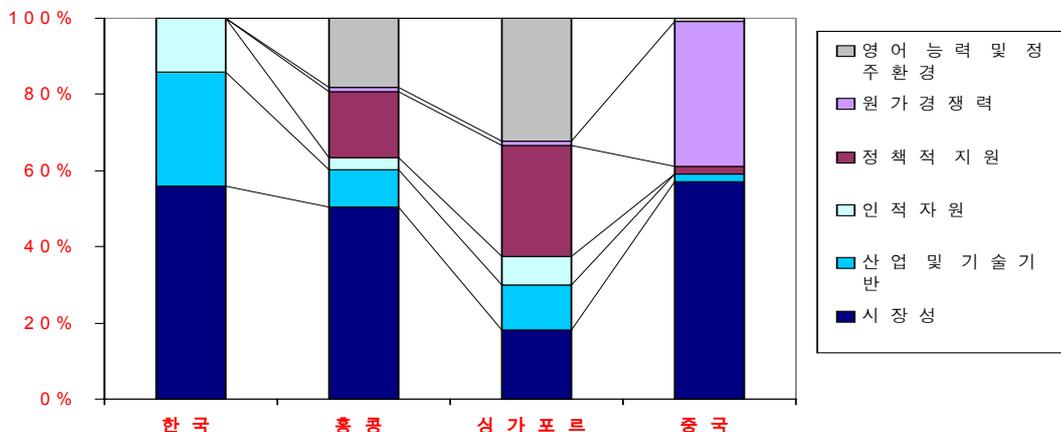
대중 경쟁력 유지를 위한 부품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육성 시급

- 이러한 중국과의 상호 보완성이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 배양,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식 집약적 서비스 육성 등이 전제되어야 함

- 중국과 같이 능동적인 개방화 전략의 추진을 통해 선진자본과 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국내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
 - 앞서 살펴 보았듯이, 중국의 고기술 업종 내 경쟁력 확보의 가장 큰 요인은 외국인투자를 통해 선진자본과 기술을 능동적으로 유치한 점임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 우리나라는 해외 혁신자원의 도입에 있어 산업기반 및 기술수준, 인적자원, 시장성 등이 주변 경쟁국에 비해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시장규모에서는 중국에 뒤지나, 인력, 금융, 지적재산권, 기술 및 R&D, 통신 등에서 중국보다 유리한 환경

< 그림 4-18 > 국가별 외국인투자관련 경쟁력 비교



자료: KDI(2005)

나. 능동적 개방화 전략으로서의 한·미 FTA

1) 한·미 FTA의 기대효과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 중국의 부상, 고용의 탈공업화, 제조업 공동화, 고부가가치 서비스 활동의 중요성 증가 등 지금까지 논의한 국내외 경제환경 여건 변화를 고려해 볼 때, 한·미 FTA 추진은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으로서 그 의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및 FTA의 확산 추세를 고려해 볼 때, 국내 경제주체들의 내부 혁신역량 및 제도개선 만에 의존하여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
 - 한·미 FTA와 같은 능동적인 개방전략의 채택을 통해 해외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혁신자원을 흡수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혁의 추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
 - 특히,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말미암은 기회와 도전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능동적 개방화 전략의 채택을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가 필요

대미 시장접근의 확대를 통한 무역 창출효과

- 한·미 FTA의 기대효과로는 경제체질의 개선과 경제·사회구조의 고도화 이외에도 대미 시장접근의 확대를 통한 무역 창출 및 전환 효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 관세철폐 및 통상마찰 해소를 통해 일본, 대만, 중국 등 우리의 주요 대미 수출경쟁국 대비 우리 수출품의 경쟁력을 강화 예상
 - 다만, 미국의 관세율 수준이 낮아 무역 창출 및 전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 실제로 NAFTA의 체결 이후 회원국 간의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이러한 교역 활성화가 관세율 축소로 인한 효과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⁵⁾
- FTA를 통한 무역증대효과는 FTA 체결 이전 상대적으로 교역규모가 적었던 제품군에서 매우 현저하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할 필요
 - NAFTA의 경우 FTA 체결 이전 시점인 1989년 기준으로 교역이 미미했던 하위 10% 제품군(Least-traded Goods)이 1999년에는 전체 교역량 중 16-42% 수준으로 확대 (표 4-7 참조)
 - EU의 사례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 (Begin and Glick, 2005)

< 표 4-7 > NAFTA의 무역창출효과: Least-traded Goods의 경우

수출국	수입국	1989년 기준 총 교역 대비 비중	1999년 기준 총 교역 대비 비중
캐나다	멕시코	10%	42%
멕시코	캐나다	10%	28%
멕시코	미국	10%	17%
미국	멕시코	1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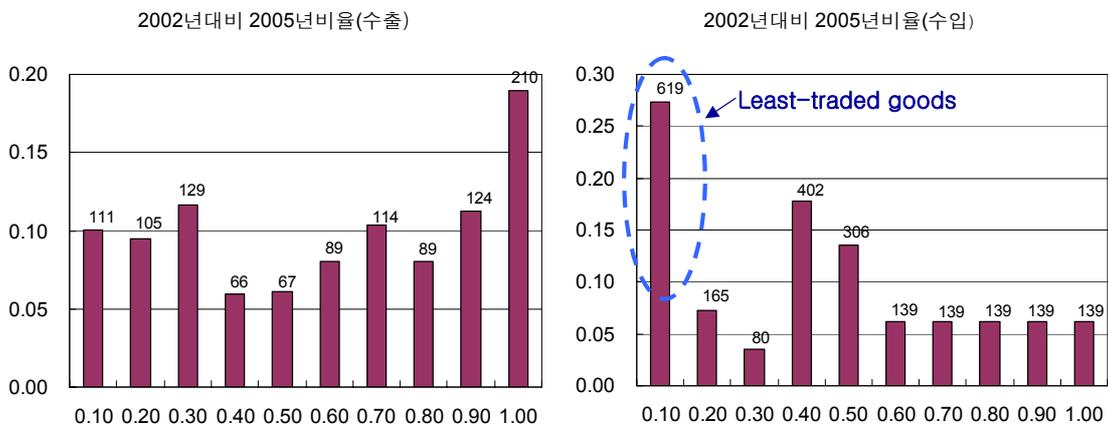
자료: Bergin and Glick (2005)

- 한·칠레 FTA의 경우 한국의 대칠레 수입에 있어 FTA 체결 이전에 교역이 미미했던 제품군(HS 10 digit 기준)의 비약적 증가가 나타남 (그림 4-19 참조)

⁵⁾ FTA 체결로 인한 관세감축효과를 실증분석 하는데 가장 큰 난점은 FTA와 연관성이 낮은 여타 국내외 거시 환경의 변화 및 제도개혁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FTA의 관세감축효과와 분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데에 있음.

- 관세 감축에 따른 칠레 농산물 수입증가는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몰리브덴광, 베타올 등 과거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제품의 수입이 증가
- 한국의 대칠레 수출은 자동차 부품 및 제품, 합성수지 등 주력 상품군의 증가가 현저해 수입실적과 대조적

< 그림 4-19 > 한·칠레 FTA 체결 전후의 수출입 구성 변화



주: 가로축은 2002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입) 가능 품목들을 실적이 가장 높은 제품 순으로 우측부터 10%씩 분할한 것임. Y축에는 동 제품군들의 2005년 기준 전체 교역량 대비 비중을 나타냄.

- FTA 체결 이전에 교역이 미미했던 제품군의 교역 증대는 FTA의 효과가 단순히 관세율 축소효과에 머무르지 않고 제품 탐색 비용(search costs) 절감 등 제반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로 이어짐을 의미)

2) 한·미 FTA와 산업구조 고도화

최근 양국간 교역·투자에서 고기술 산업군의 비중이 비약적 증가세

6)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바와 같이 CGE 모형에 의해 추정되는 관세감축효과를 중심으로 FTA의 득실을 논하는 것은 그 한계점이 존재함을 시사

□ 최근 한·미 양국간 무역 및 투자 측면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

○ 한·미 FTA 추진을 통한 양국간 무역·투자활성화는 고기술·고부가가치업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우리나라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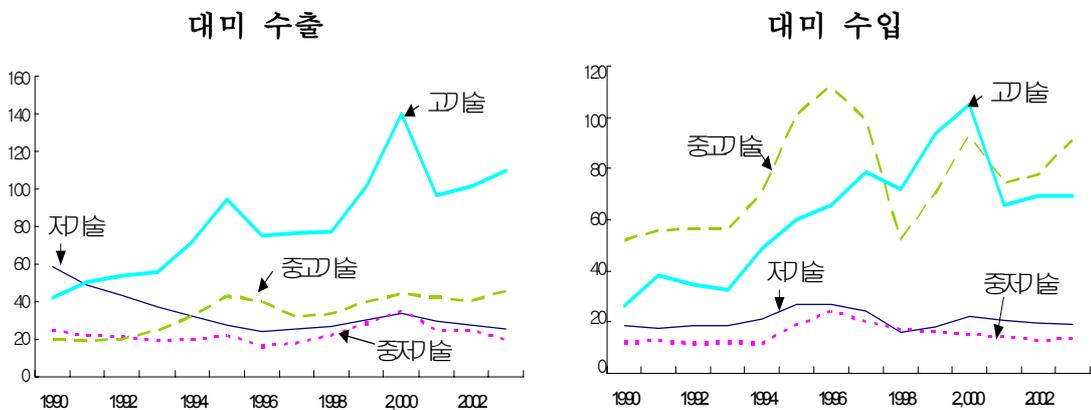
□ 제조업의 경우 한·미 양국간 교역에서 고기술 산업군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IT 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고기술 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시현했고, 중고기술 산업군도 꾸준한 증가세

- 전체 제조업 수출 중 고기술 및 중고기술 산업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각각 29.3%와 13.5%에서 2003년 55.0%와 22.4%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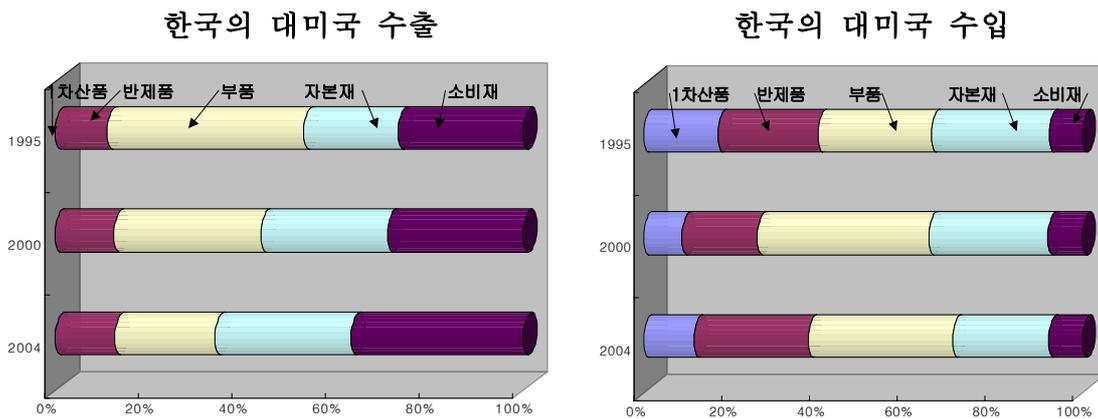
○ 대미 수입은 기계류를 중심으로 중고기술 산업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나, 반도체, 항공기부품 등 고기술 부문의 수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고기술 수입비중은 1990년 24.2% → 2003년 35.9%)

< 그림 4-20 > 기술수준별 한국의 대미 수출입 추이 (제조업, 억불)



- 양국간 교역을 가공단계별 제품군으로 나누어보면, 2004년 현재 우리나라는 승용차 등 최종 소비재의 수출비중(37%)이 가장 높고, 이외에 자본재(29%), 부품(21%), 반제품(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부품, 반제품 등의 중간재 비중이 줄어들고, 소비재 위주의 최종재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
 - 한편,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은 부품 및 부분품(33%), 반제품(26%), 자본재(22%), 1차산품(12%) 등의 순

< 그림 4-21 > 가공단계별 한·미간 수출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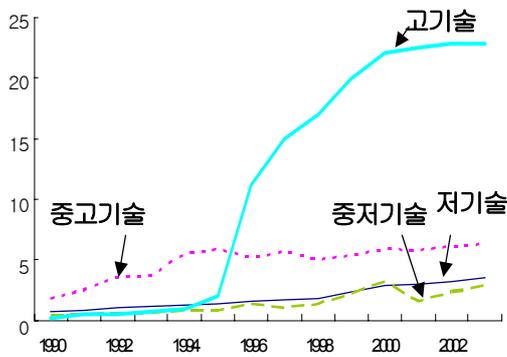
자료: UNCTAD, COMTRADE database

- 양국간 직접투자의 경우에도 양국간 교역 추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기술 및 중고기술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 중
 -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직접투자는 IT산업을 중심으로 고기술 산업군이 비약적으로 확대
 - 제조업 부문 전체 대미 직접투자 신고누적액 중에서 고기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6.8%에서 2003년 현재 64.2% 수준까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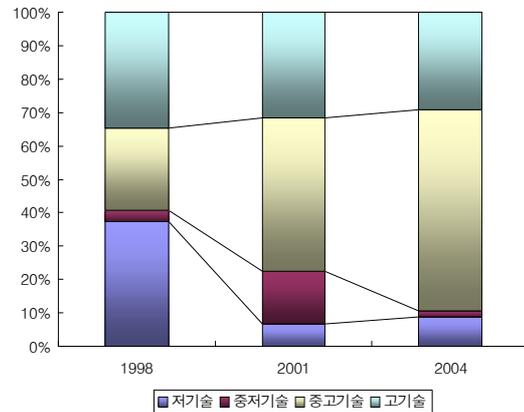
- 한편, 2004년 미국의 제조업 관련 대한국 직접투자실적 중 중고 기술 산업군의 비중은 60% 수준으로 확대
 - 특히, 최근 자동차부품, 화학 등 우리나라의 대외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부품소재 등의 중고기술 산업군에 대한 투자 비중 증가가 현저

< 그림 4-22 > 기술수준별 양국간 직접투자 추이(제조업)

대미 직접투자(투자잔액, 억불)



대한국 직접투자비중(연간투자액,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핵심중간재 경쟁력 제고

-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과의 FTA를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품·소재·기계 등 핵심중간재 부문의 경쟁력 제고의 계기로 활용
 - 기계·부품분야 외국인투자 활성화는 국제분업구조 하에서 향후 우리 산업의 위상 및 발전을 가늠하는 주요한 정책변수
 -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부품소재 및 기계부문의 해외 중견기업, 전문공급업체를 대단위로 유치하는 것은 중견기업이 부족한 국내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국내 선도업체와 중소기업

간의 간극을 메움으로써 국내 생산·기술혁신체제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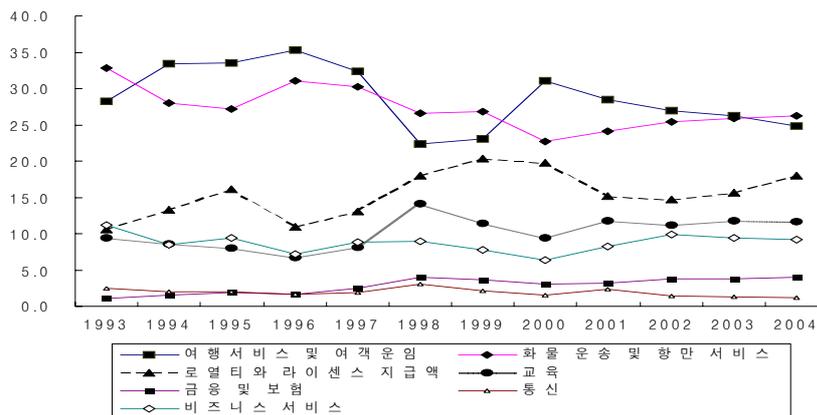
- 한·미 FTA는 부품소재 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중국 및 ASEAN 국가들에 대한 부품소재 공급기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반도체, 전자통신, 자동차 등 기존의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경제전체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게 될 것임
 - 중국은 향후 급속한 성장기간 중 핵심부품을 수입, 가공하여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유지할 것이므로 부품소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한·미 FTA의 체결은 미국으로의 수입선 전환을 통해 고질적인 부품·소재부문 대일 수입의존 및 무역적자 개선에도 기여 예상

지식기반 서비스 육성을 통한 제조업 혁신능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 한·미 FTA는 선진 경영기법의 이전 및 경쟁 촉진을 통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국내 서비스업의 저생산성 문제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제조업의 단순 생산기능이 후발개도국으로 이전되면서 경쟁우위의 핵심요인도 사업서비스, R&D 등 지식 집약적 서비스 활동으로 옮겨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발전 현상이 심화되는 등 서비스업 경쟁력의 중요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짐

- 대내적으로 빠르게 진행 중인 고용의 탈공업화에 대처하여 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데도 기여
- 미국의 대한국 서비스 수출은 여행서비스 및 여객운임, 화물운송 등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교육, 금융 등 고부가가치 업종과 로열티 및 라이선스 지급액의 비중도 증가
- 한편,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누적 신고액기준: '90년 23% → '04년 57%)
 - 특히 최근 금융·보험, 부동산, 문화·오락 등의 비중이 높아짐.

<그림 4-23 > 서비스산업 부문별 미국의 대한국 수출 비중 추이 (단위: %)



<표 4-8 > 서비스 부문별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추이 (누적신고액 기준)

(단위: US 백만불)

	1990	1995	2000	2004
서비스업	525 (23%)	1,399 (33%)	9,567 (53%)	18,464 (57%)
도소매업	218 (10%)	712 (17%)	4,413 (25%)	5,799 (18%)
음식및숙박	27 (1%)	117 (3%)	1,348 (8%)	1,696 (5%)
운수및창고	20 (1%)	36 (1%)	72 (0%)	77 (0%)
통신	0.1 (0%)	5 (0%)	258 (1%)	287 (1%)
금융및보험	208 (9%)	375 (9%)	1,271 (7%)	4,585 (14%)
부동산및임대	0 (0%)	0 (0%)	306 (2%)	1,221 (4%)
비즈니스서비스	48 (2%)	136 (3%)	642 (4%)	1,088 (3%)
문화및오락	6 (0%)	15 (0%)	871 (5%)	2,315 (7%)
기타서비스	5 (0%)	5 (0%)	384 (2%)	1,398 (4%)

주: 괄호내는 국내 총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신고액(1962년 이후) 대비 부문별 비중

- 최근 유통산업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장개방은 영세적 시장구조를 개선하여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시장효율화를 달성하는 구체적 수단
 - 1995년 개방 이후 까르푸, 월마트 등 해외 다국적 유통기업의 진출 및 이에 따른 국내 유통업체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으로 현재 우리나라유통시장은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유통업체 중심의 선진국형 시장구조로 변모
 - 최근 국내 유통업체는 총 900조원 규모(우리나라의 6배)의 중국 시장에서 해외 유수의 유통업체와 경쟁 중임

- 미-칠레, 미-호주 FTA 등 기존에 추진된 미국의 FTA 구체적 내용을 고려해 보면,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서비스산업에 관련하여 매우 광범위한 부문을 대상으로 논의가 전개될 전망
 - 한·미 BIT 협상에서 미국측 주요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스크린 쿼터 및 통신 서비스, DDA 협상에서 논의된 법률, 의료, 교육, 금융 서비스 이외에도 기업지원 서비스, 광고, 건설, 엔지니어링 등 다방면에 걸친 논의가 진행 예상

-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선진국들에 비해 고용 증가와 1인당 소득의 증가율 간 정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24 참조)
 - 이는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생산성 증가가 높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경우 고용증가와 함께 종사자의 소득증가를 동시에 충족시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신속히 개선할 수 있음을 방증

< 그림 4-24 > 서비스업종별 1인당 소득증가율과 고용증가율간 상관관계



주1: 금융업, 운수보관업, 통신업, 공공서비스는 제외
 주2: 일인당소득=(매출액-영업비용+인건비)/종사자수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통계조사」 및 「도소매업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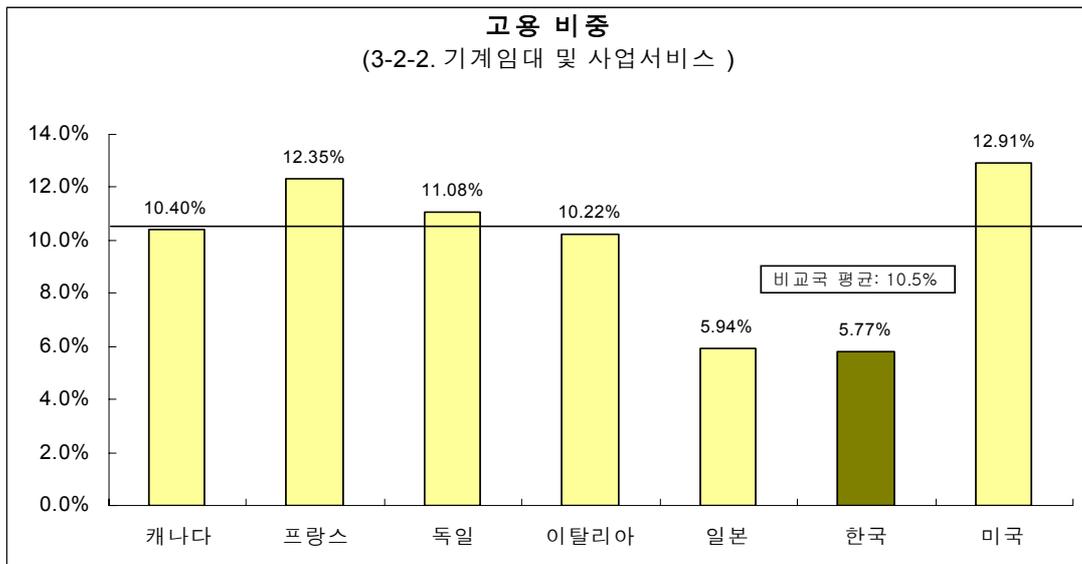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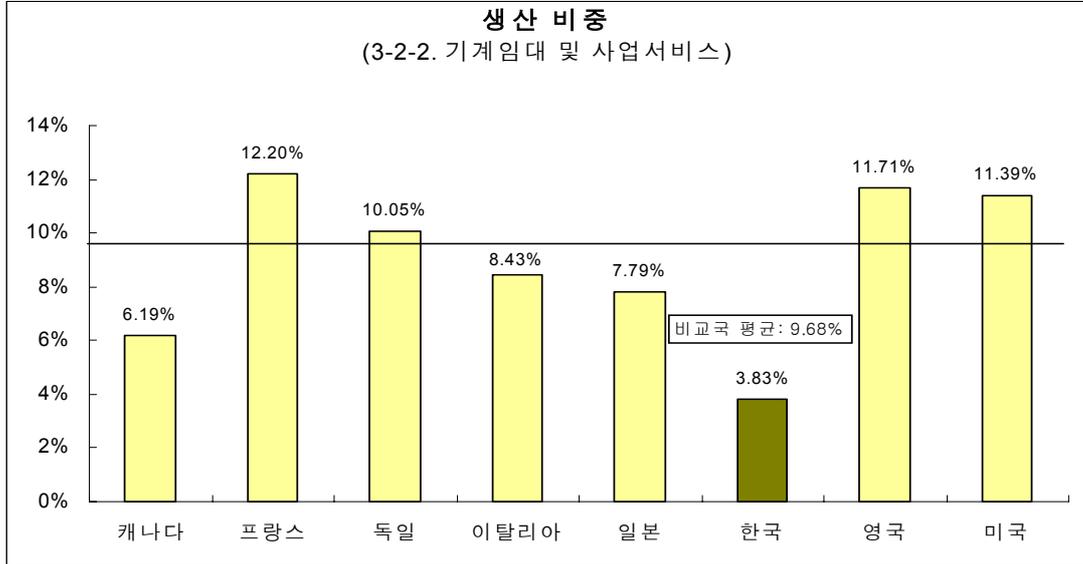
□ 생산 및 고용 측면에서 볼 때, 지식기반 서비스의 핵심인 사업관련서비스의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아 향후 성장성에 기대감이 큼 (그림 4-25 참조).

○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등 사업관련서비스의 경우 IT 등 고기술 제조업과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음

- '00년 산업연관표 기준으로 사업서비스는 고기술 산업군에 대한 영향도가 29개 서비스 부문 중 7위, 고기술 산업군으로부터의 영향도는 1위를 기록

○ 이는 한·미 FTA를 통한 사업관련서비스의 육성이 제조업의 혁신 및 생산 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사업관련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님을 의미

< 그림 4-25 > 주요국별 사업관련서비스의 생산 및 고용 비중



- 한·미 FTA를 통한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서비스 허브로 부상하는데 크게 기여 예상
 - 특히, 한·미 FTA를 통해 금융 및 물류 부문에 대한 미국의 투자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의 달성을 촉진

- 또한 법률·회계·의료·교육 등 지식기반 서비스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식기반 서비스를 동북아 역내 수출산업으로 전략적 육성

한-미 FTA를 농업부문 구조조정의 계기로 활용

□ 한-미 FTA를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

- 한·미 FTA는 단기적으로 품목별 보호효과의 감소에 따라 품목별 영농가구간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고, 부문내 규모와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추정되지만, 적절한 정책적 배려와 결합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선호에 부응하는 고품질 농업으로 한국농업의 구조를 전환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고부가가치 영농으로의 전환 성공 사례: 경남 함양군의 경우 흑돼지, 사과, 파프리카 등 고소득 전략품목을 개발하여 집중 육성한 결과 연 소득이 역대를 기록한 농가수가 100개가 넘음
-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충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유통체계를 확립하여 국내시장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일본 등에 농산물 수출 확대 도모
 - 국내외 농산물·식품시장에서 청정·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품질·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품질 차별화와 마케팅 전략 등 비가격 경쟁력이 중요시되는 상황
 - 일본·대만·홍콩·싱가폴 등 아시아권 수출시장이 넓어 고품질의 과수·화훼 등 경쟁력 있는 품목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모색

- 자연조건과 기술·정보·지식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 보유하고 있어 생명공학(BT), 정보통신기술(IT) 등 농업에 응용할 경우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대 가능성이 높음
 - 농업 생산만이 아닌 “복합생활공간”으로 변모할 경우 농업·농촌의 가치가 새로이 부각될 가능성으로 도·농이 상생하는 국토균형 발전을 실현 가능
- 단, 농업부문내의 소득불평등도와, 농업과 제조업간의 생산성 및 소득 불평등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농업부문 구조조정과 함께, 방출되는 농민에 대한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의 확충 필요
- 우선, 급격한 구조 전환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과급영향이 매우 큰 민감품목은 FTA협상의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확보
 - 대내적으로는 농가소득 안정장치를 보완하고,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도록 투융자계획을 조정
 - 자가소비위주 영세소농은 농업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농촌 혹은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농업정책의 집중력과 효율성을 제고
 - 한·미 FTA를 통한 농업 부문의 구조조정은,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특화를 통해 한·중 FTA, 한·호 FTA 등 추후의 개방화 과정에서 농업부문이 입을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3) 한·미 FTA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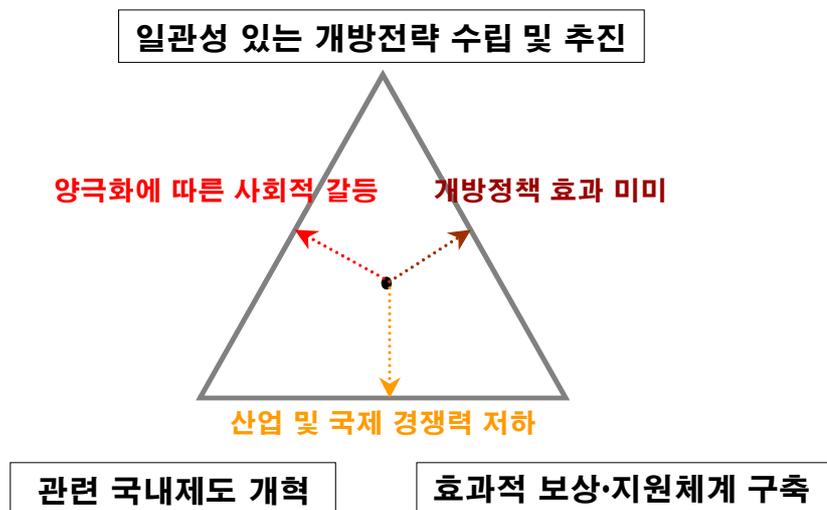
- 앞서 살펴본 한·미 FTA의 기대효과는 FTA 체결과 동시에 자동적

으로 달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이에 동반한 국내의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일반적으로 FTA 등 시장개방의 효과는 ① 일관성 있는 개방전략 수립 및 추진, ② 관련 국내제도의 개혁, ③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지원체계의 확립 등이 상호 병행될 경우 극대화될 것임

- 시장개방의 속도에 비해 관련 국내제도의 개혁이 미진한 경우, 중장기적으로 시장개방의 효과가 낮을 수 있음
- 피해계층에 대한 효과적 보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따르지 않으면, 시장개방 자체의 지연은 물론, 양극화의 심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우려
- 장기목표 설정과 원칙에 의거한 종합전략이 미흡한 채 개별 국가별로 일관성 없는 협상전략을 내놓을 경우 FTA 간의 충돌로 국제경쟁력을 오히려 저하

<그림 4-26> 개방화정책의 기본원칙



- 2000년대 이후 멕시코의 경제성장률 및 NAFTA 회원국에 대한 교역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시장개방에 상응하는 국내제도의 개혁 미흡에서 기인하였다는 견해가 지배적 (Tornell et al. 2004, Kose et al. 2004 등)

- 특히, 노동시장의 경직성, 통신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사법제도의 불확실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

□ 한·미 FTA에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리스크 요인 중의 하나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의 FTA 체결이 성장 유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를 저부가가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특화시킬 가능성임

- 그러나, 경제성장이 부진하고 산업구조가 저부가가치형인 국가들의 대부분이 과거 대외개방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

- 특히, 네덜란드나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내수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국가 중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성공한 국가는 예외 없이 경제개방에 적극적이었음

- FTA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중국의 부상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미 FTA와 같은 능동적 개방화 전략이 우리의 국제경쟁력의 확보와 유망산업의 육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FTA는 특성 상 무역창출 내지 전환효과를 통해 미체결국 보다는 체결 당사국의 투자 및 교역을 확대하는 기회로 작용하는 점을 상기

- 단, 한·미 FTA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관련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전략적 수단으로서 중국, ASEAN 등 교역구

모가 상대적으로 큰 개도국들과의 FTA를 병행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함

- 이는 개도국 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더불어, 수직적 분업체제의 구축을 통한 미국 등 대선진국 무역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임.
- 또한, 이러한 전략은 FTA의 시장개방효과가 다자주의에 의한 개방효과와 유사해지며 극대화 되는 것은 물론 국제분업구조의 왜곡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임

□ 한편, 한·미 FTA는 미국의 자본 유입 및 경기의 동조화 등 경제 전반의 미국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소버린의 SK 경영권 분쟁이나 최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과정에 관련하여 해외자본의 유입에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 외국자본에 대한 경계심은 선진국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국제 자본시장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투기적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과 이에 따른 국내기업의 경영권 위협, 과도한 배당 요구, 투자 부진 등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
-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투기적 성격이 강한 자본 유입의 경계인바, 해외자본과 국내자본에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
 - 해외자본의 유입이 가져오는 안정적인 해외자금의 유입, 국내 산출량 증가, 선진기업의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 이전 등의 다양한 순기능을 염두에 둘 필요
- 미국경제와의 동조화 현상은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미국경제의 위상,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 세계경제의 자유화 추세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정부는 한·미 FTA를 시작으로 일본, 중국 등 여타 국가들과의 FTA 추진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제교류의 다변화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한·미 FTA 체결이 부품소재 및 기계부문 등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

- 지난 2003년 발효된 한·일 양자투자협정 이후 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이 과히 호전되지 않은 점을 지적

- 우리나라는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한·일 양자투자협정 체결 이전에 이미 선진국 수준의 투자보호제도를 마련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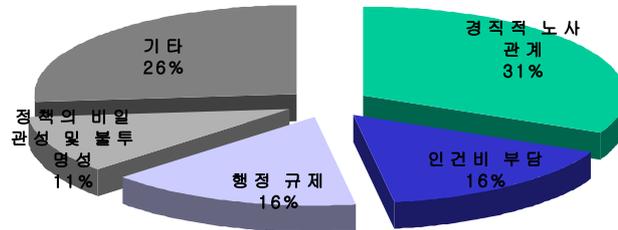
- 최근 세계은행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쌍무투자협정 체결이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던 경우가 빈번

-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양자투자협정에서 다루어지는 내국민대우나 투자재산 보호장치 이외의 다양한 제도 개혁 병행 필요

- KDI의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설문조사(2005)에 따르면, 한국은 시장성, 관련 산업기반 및 기술수준, 인적자원 등에서 비교대상국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경직적인 노사관계, 인건비 부담, 규제 등이 외국인투자 유치의 큰 걸림돌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

< 그림 6 > 국내 진출 외국인기업의 기업활동 애로사항



자료: KDI(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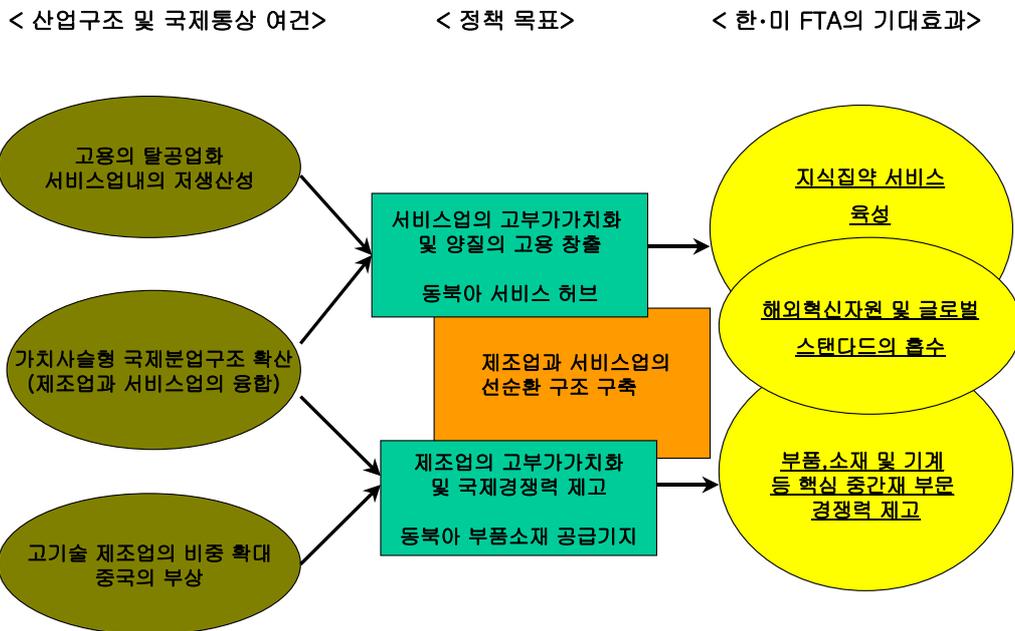
마. 결론

- 한·미 FTA 등 시장개방의 적극적 추진은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 국가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관문임과 동시에, 경제체질의 개선과 경제·사회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장기적 국가발전전략의 구체적 정책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지대
 - 국제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대외지향형 경제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부상, 고용의 탈공업화 등 우리를 둘러싼 산업구조 및 국제통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고부가가치 제조업종 및 지식 집약적 서비스 활동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중점 정책목표
 - 이러한 정책목표는 국내 경제주체들의 내부 혁신역량만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현실인 바, 한·미 FTA와 같은 능동적 개방화전략의 추진을 통해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국내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

-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 배양,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식 집약적 서비스 육성에 노력
 - 특히,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관건은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있음을 상기해야 함
 - 한·미 FTA 추진과 동시에 세계 경제 내 우리 경제 및 산업의 현재 위상과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객관적인 진단과 비전 설정을 통해 국내 관련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구

<그림 4-27> 한·미 FTA와 산업구조 고도화





한·미 FTA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2006. 5. 17.

(KDI)



1. 한·미 FTA와 산업구조: 논의의 배경

□ 한·미 FTA와 산업구조: 논의의 배경 (1/3)

한·미 FTA의 기대효과

- **대미 시장 접근 확대**
 - 관세 등 제반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한 무역 창출 및 거시경제적 효과
 - 일본, 중국 등 주요 대미 수출경쟁국 대비 경쟁력 강화
- **산업구조 고도화 및 생산성 제고**
 -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경쟁 촉진과 선진 기술·경영기법의 흡수
 - 국내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 한·미 FTA와 산업구조: 논의의 배경 (2/3)



FTA의 경제적 효과: NAFTA의 시사점

- **NAFTA 회원국 간 교역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시현**
 - 통상적인 CGE 모형 추정치보다 큰 규모 (Kehoe, 2004 등)
 - 관세율 인하 효과인지의 여부는 불분명
- **산업간 및 산업내 자원배분 효율화**
 - 기업의 진입·퇴출에 의한 생산성 제고효과가 큼 (Trefler, 2004 등)
 - 관세인하의 경우보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더 큰 효과
- **시장개방에 상응하는 국내 제도 개혁의 필요성**
 - 최근 멕시코의 경제성장 및 교역의 둔화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사법제도의 불확실성 등 국내제도의 개혁 미흡에 기인 (Tornell et al. 2004, Kose et al. 2004 등)

[참고] FTA의 무역창출효과



무역창출효과의 원천: 관세율 감축 vs 경제교류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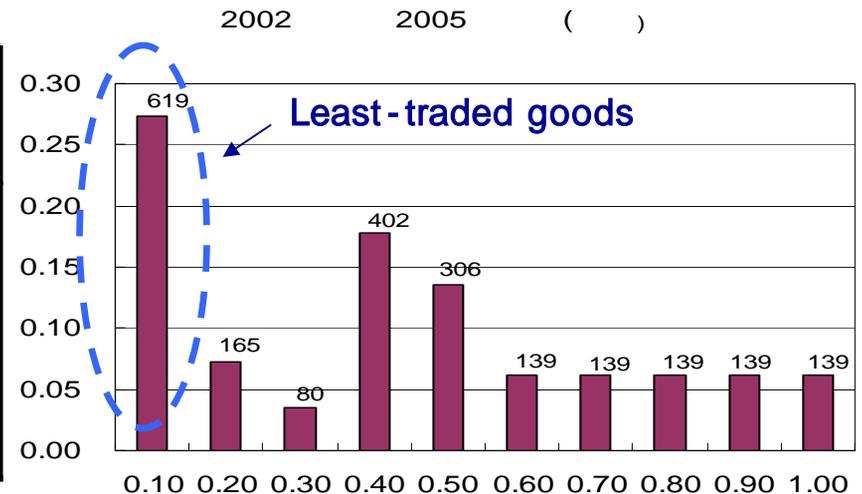
- FTA 체결 이전 상대적으로 교역이 적었던 제품군(LTG:Least-traded Goods)에서 무역 증가가 뚜렷 (특히 체결 후 1-2년 사이)
- 이는 FTA의 효과가 단순한 관세율 효과에 머무르지 않고 제품 탐색비용의 절감, 효율성 증대 등 경제교류 활성화의 결과임을 의미
- CGE 모형 추정치 논의의 한계 (관세율 인하 효과 위주)

< NAFTA의 무역창출효과: LTG의 경우 >

수출국	수입국	1989년 기준 총교역 대비 비중	1999년 기준 총교역 대비 비중
캐나다	멕시코	10 %	42 %
멕시코	캐나다	10 %	28 %
멕시코	미국	10 %	17 %
미국	멕시코	10 %	16 %

: Bergin and Glick (2005)

< 한-칠레 FTA 전후의 수출입 구성 변화 >



□ 한·미 FTA와 산업구조 (3/3)

▶ 산업구조 고도화의 정의

-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행

▶ 한·미 FTA와 산업구조 고도화: 논의의 필요성

- 시장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내 제도개혁의 방향
- 산업고도화의 장기 비전 하에 일관성 있는 FTA 협상원칙 마련
 - 향후 주요국과의 FTA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기회

2.

2.1

2.2

2.3

3.

3.1

3.2

4.

FTA

4.1 · FTA

4.2 · FTA

5.



2.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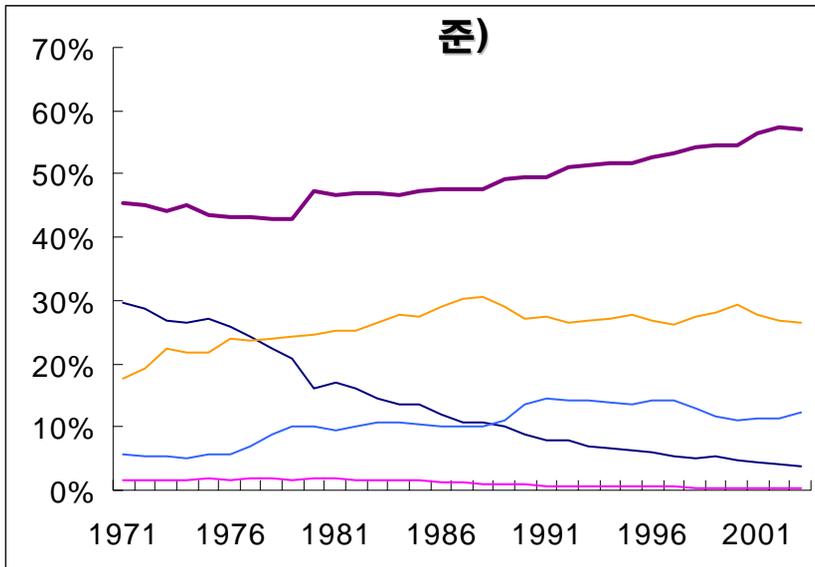
2.1 산업 일반

□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 산업 일반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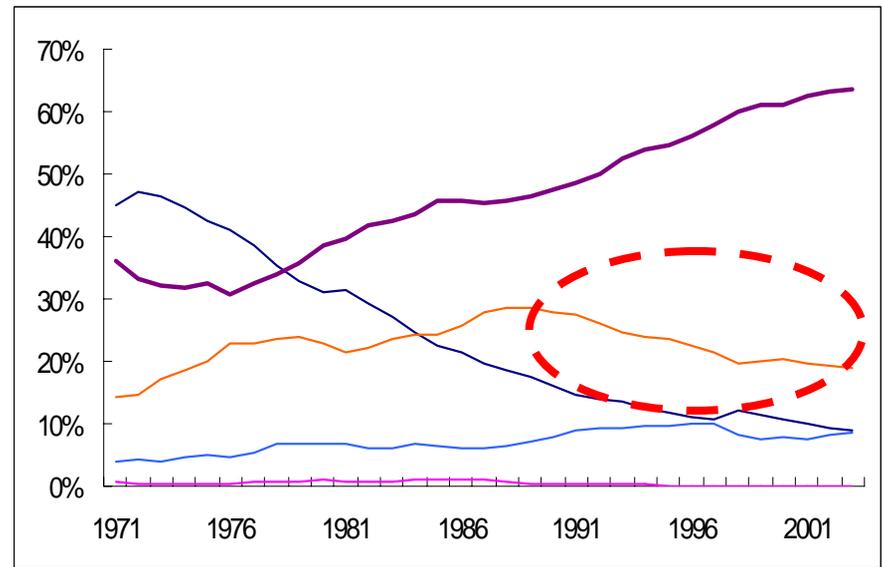
▶ 서비스 산업의 비중 확대

- 서비스업(농림어업) 대GDP 비중: 71년 45.4(29.6)% → 03년 57.2(3.8)%
- 서비스업(농림어업) 고용 비중: 71년 36.0(44.9)% → 03년 63.5(8.8)%
-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초기단계로 평가됨**

대 GDP 비중 (경상가격 기



고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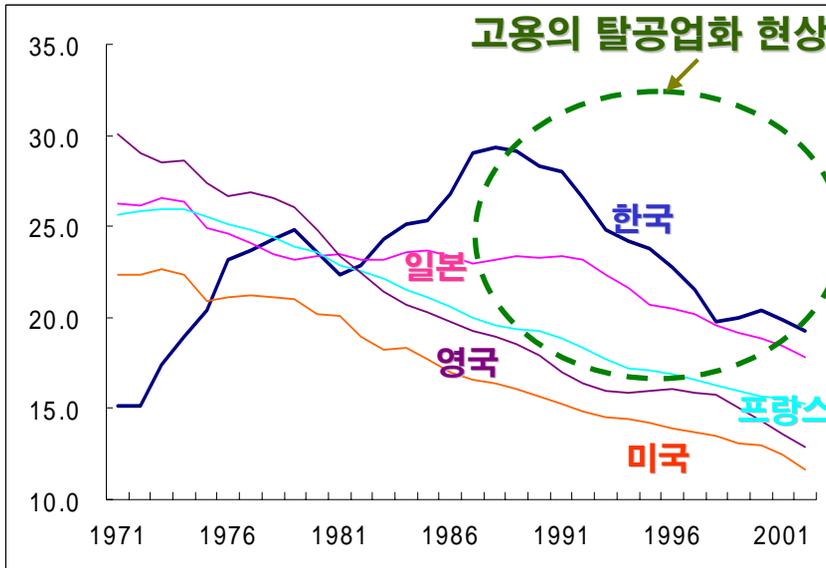


□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 산업 일반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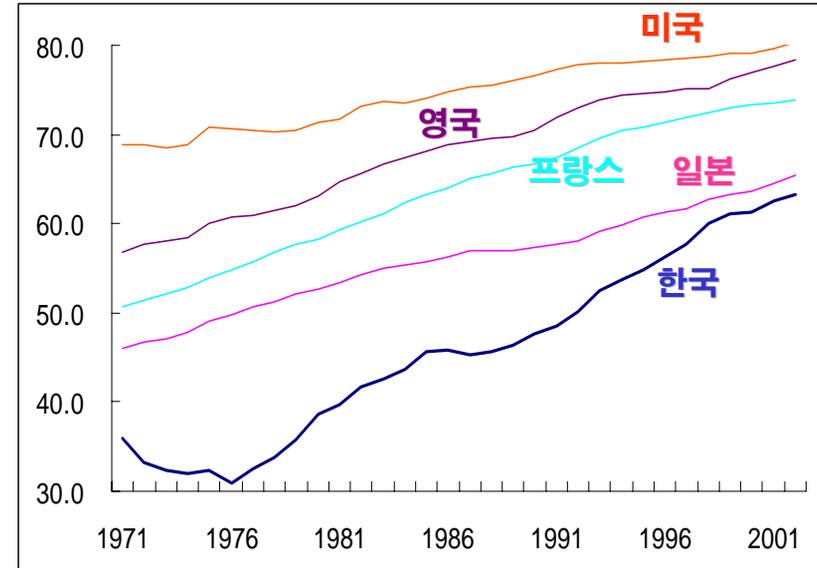
▶ 고용의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 현상

- 우리나라는 1988년을 정점으로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빠르게 하락 중** (1988년 29.4% → 2003년 19.1%)
 - 특히, 섬유, 의류, 신발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고용 감소 뚜렷
- 서비스업에서의 **양질의 고용창출 및 고도화 필요성이 고조**

제조업의 고용 비중 추이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 추이





2.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

2.2 제조업

□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 제조업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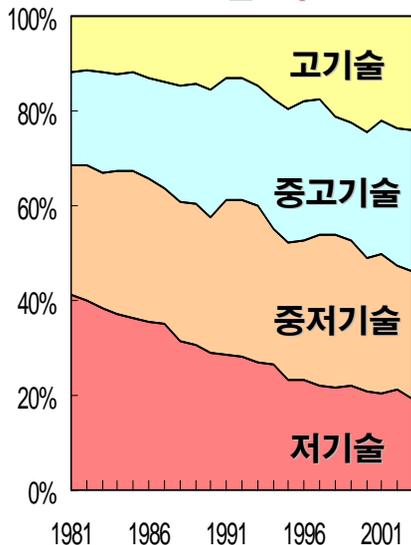


제조업 내 빠른 고기술·고부가가치화에도 불구하고 핵심자본재의 대외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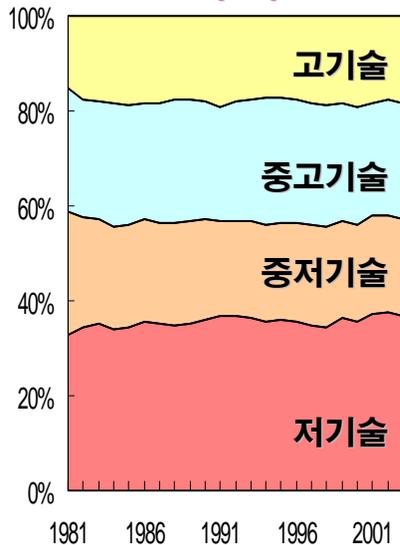
- 03년 현재 고기술 및 중고기술 산업군의 비중(51.7%)은 일본(48.1%), 미국(42.8%), 영국(40.2%) 등 주요 선진국을 모두 초과하는 수준
- 최근 IT, 자동차 등 주력상품의 수출호조에 불구하고 부품소재의 높은 해외의존도로 인해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이 시현

기술수준별 제조업 내 부가가치 비중

한국



미국



주요 디지털 기기의 국산화율

제품명	국산화율
MP3	82%
PDP TV	80%
1)	70%
(LCD)	51%
	40%
	37%

: 1) 2003

:

(2006)

〈참고〉 기술수준별 산업군 정의

산업군	세 부 업 종
고기술	영·음향 및 통신장비, 사무용·컴퓨터 장비, 항공기 제조업, 의약품, 의료·광학·정밀 기기)
중고기술	석유화학, 비전기/전기 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중저기술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 금속산업, 선박제조업
저기술	음식료품, 섬유제품,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가죽·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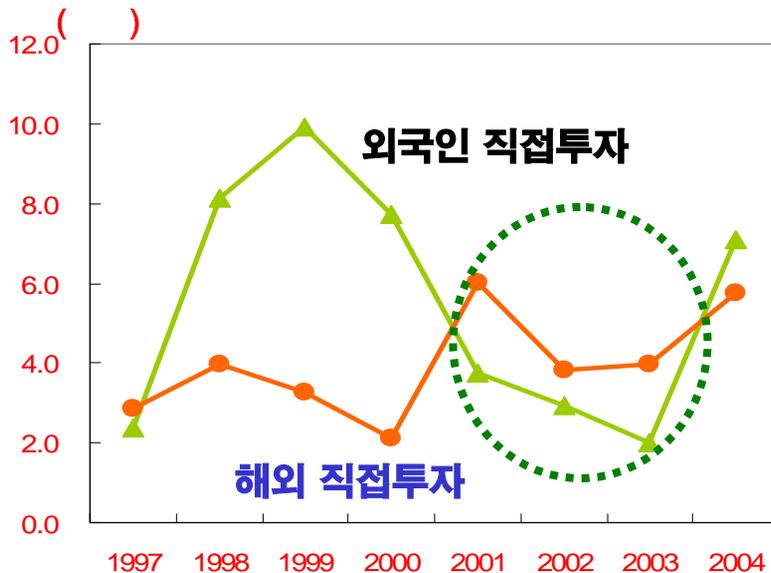
주: OECD 분류기준에 따라 기술집약도기준으로 분류

□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 제조업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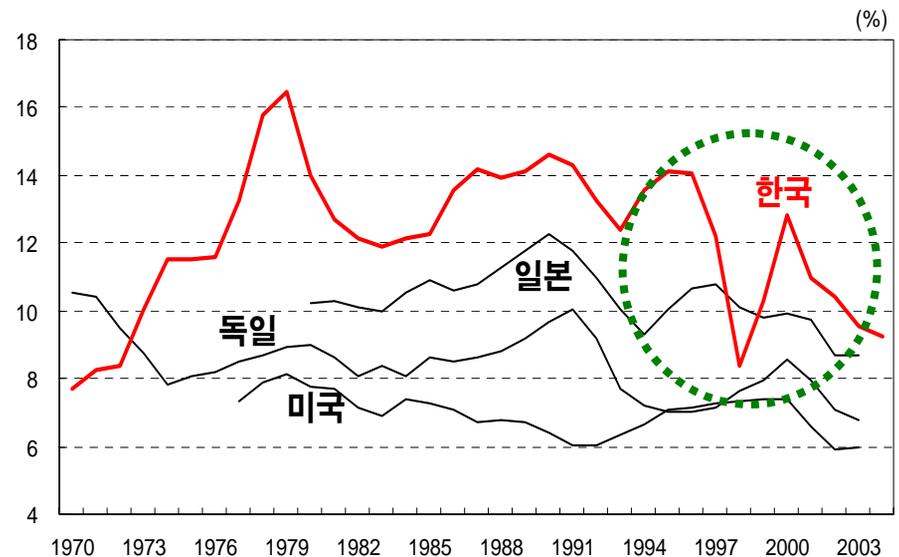
▶ 제조업 공동화 논의의 대두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의 가속화로 국내생산기반에 바탕을 둔 기존의 수출전략은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한계점 노출
 - 노동집약적 조립공정이 해외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는 추세
- 최근 대중 직접투자가 급증하는 동시에 국내 설비투자의 부진이 가시화되면서 소위 제조업 공동화 우려가 고조

〈 우리나라 제조업 직접투자 최근 추이 〉



〈 GDP 대비 설비투자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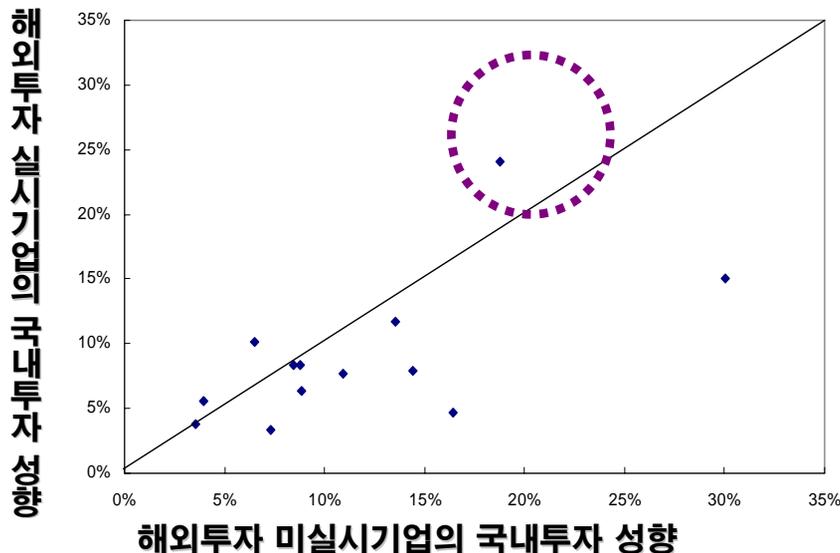
□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 제조업 (3/3)

▶ 해외직접투자의 국내투자 구축효과가 부분적으로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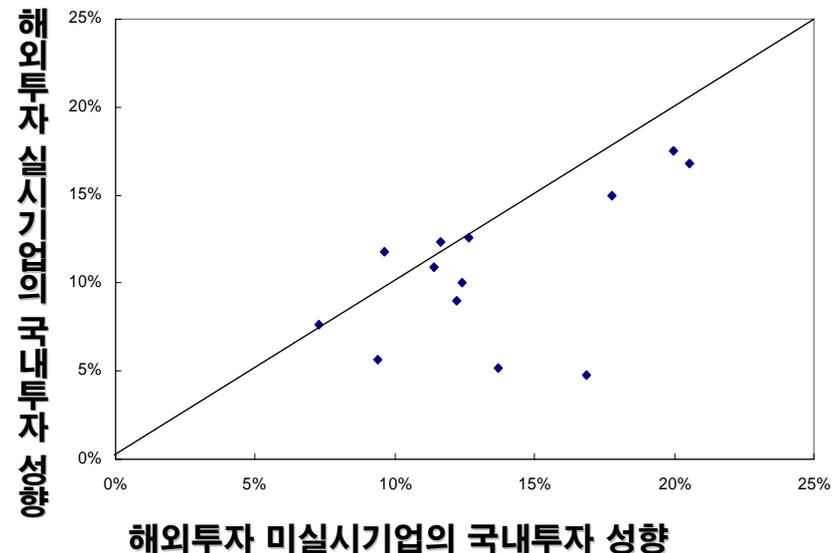
- 대부분의 업종에서 FDI 실시기업의 국내설비투자성향이 FDI 미실시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대기업의 경우, 해외투자를 실시한 기업의 설비투자성향이 높은 업종은 **전기전자와 일차금속**, 중소기업의 경우 **비금속광물**에 불과

< 해외투자 실시여부로 분류한 업종별 규모별 설비투자 성향 >

대기업



중소기업





2.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

2.3 서비스업

□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 서비스업 (1/3)

▶ OECD 국가들은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빠른 성장세 시현 중

- OECD국가들의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2020년까지 75-80% 수준으로 수렴하면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
 - 서비스업은 과거 생산성 증가율이 낮고 혁신이 미진한 분야로 인식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경제성장의 주요한 원동력으로 재인식
 - 최근 금융, 통신, 사업서비스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 빠른 성장이 관측됨 (대GDP 비중이 80년대 10%대에서 01년 20-30%로 증가)
 -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은 제조업의 혁신 및 생산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서비스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 * 사업서비스: 기계용품 임대, 연구개발, 컴퓨터관련 서비스, 법률, 회계, 경영 컨설팅, 엔지니어링, 광고, 디자인, 마케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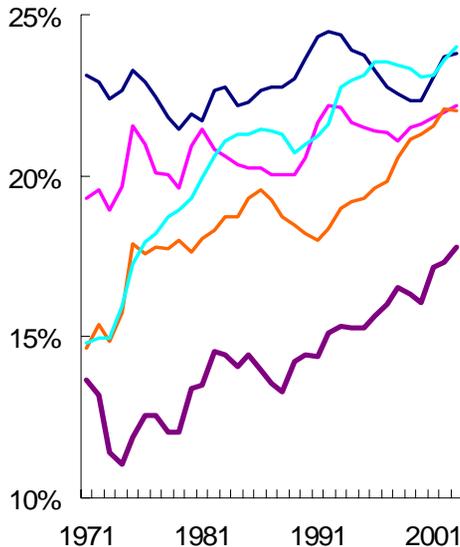
□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 서비스업 (2/3)

▶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양적 성장 속에 영세적 구조를 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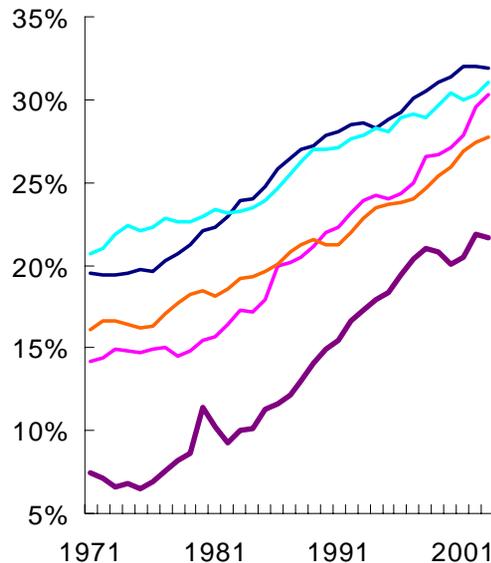
-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2003년 현재 경상 GDP의 57.2%, 고용의 63.5%를 차지
-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상, 소득탄력성이 높은 공공 및 개인 서비스, 금융 및 지식기반 서비스의 핵심인 사업서비스의 비중이 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편

< 주요 서비스업종별 대 GDP 부가가치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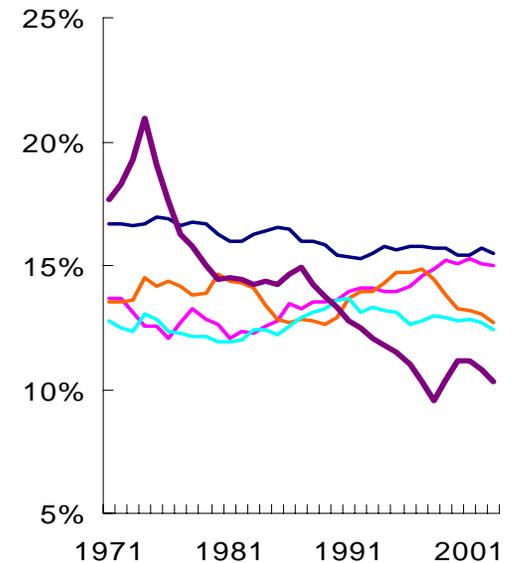
공공 및 개인 서비스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음식, 숙박 및 도소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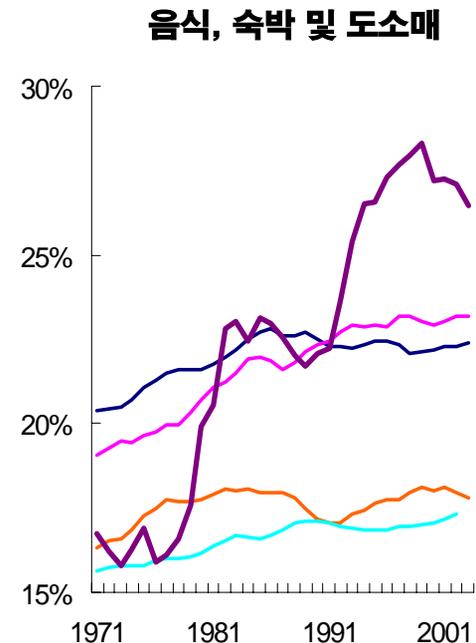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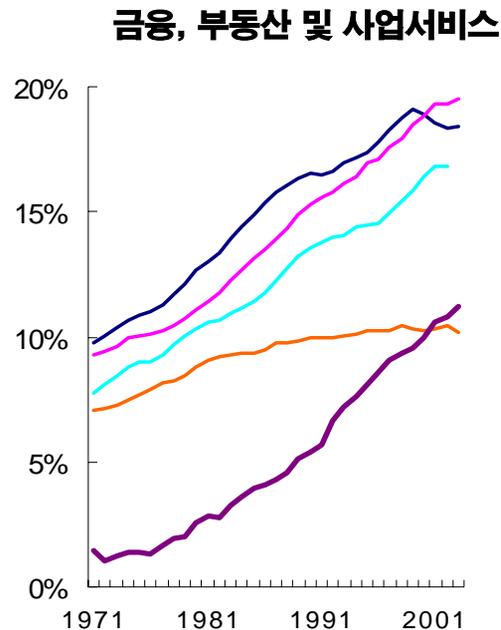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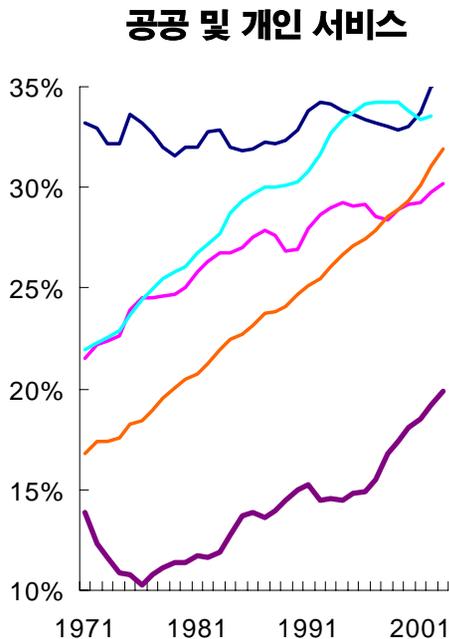


□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 서비스업 (2/3)

▶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영세성

-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업 등의 고용 비중이 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
- 공공 및 개인 서비스, 금융 및 사업서비스의 고용비중이 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편

< 주요 서비스업종별 전체 취업자수 대비 고용 비중 >



□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 서비스업 (3/3)

▶ 1인당 부가가치 창출도가 낮은 저생산성 구조

- 우리나라는 1인당 GDP 수준을 고려할 때,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적절한 수준이나 1인당 부가가치 창출도는 매우 낮은 수준(OECD, 2005)
-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 엔지니어링 등 지식기반 서비스는 IT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종과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업종

노동생산성 수준과 고용증가율(1990-2001)

업종	1990년	2001년	증가율
제조업	100	68	-32%
서비스업	100	96	+4%
제조업	100	77	-23%
서비스업	100	91	-9%

: 1 가가가
가

: OECD STAN database

고기술 산업군과의 전후방 연관관계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3	2
서비스업	5	4
제조업	6	6
서비스업	21	3
제조업	11	9

: 31

: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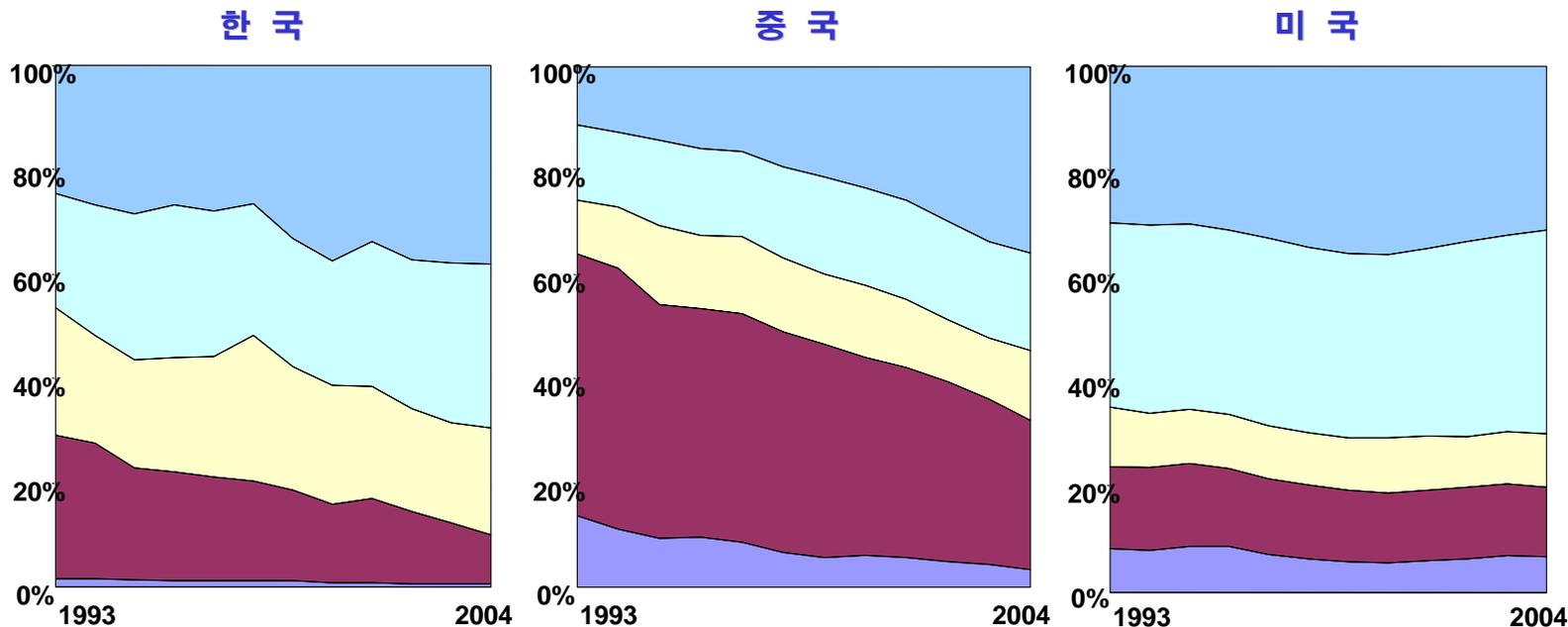
3. 중국의 부상과 우리나라 산업구조

3.1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1/3)

- ▶ 중국도 제조업의 고기술· 고부가가치화가 진행 중
- 특히, 대세계 수출에서 고기술 산업군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구조변화가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게 진행 중
 - 중고기술제품은 우리 수출비중이 중국에 비해 높은 수준 유지

〈총수출액 대비 기술수준 산업군별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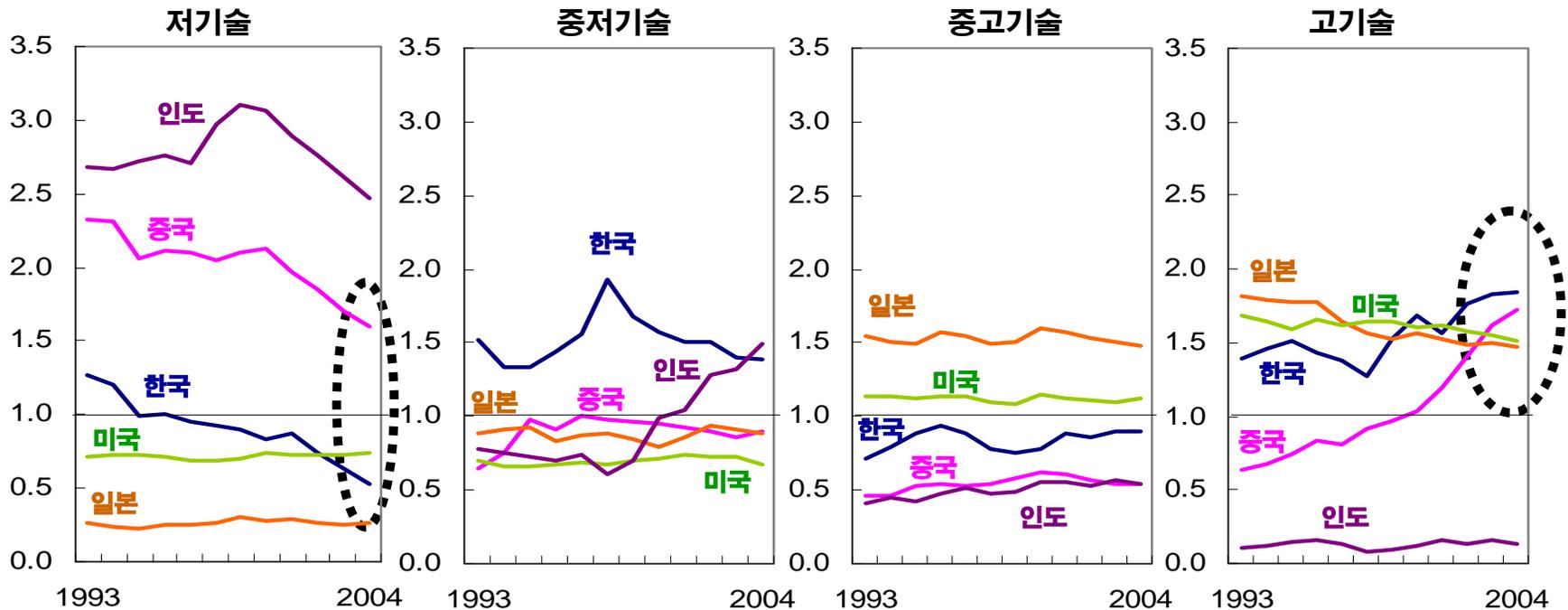


□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2/3)

▶ **중국**은 2000년 이후 고기술 산업에서도 IT제품을 중심으로 비교우위 보유하기 시작

- **한국**은 저기술제품 수출에서 1995년에 이미 비교열위로 전환된 반면, 고기술 및 중고기술 제품 수출에서는 중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RCA 지수 유지

〈기술수준별 주요국의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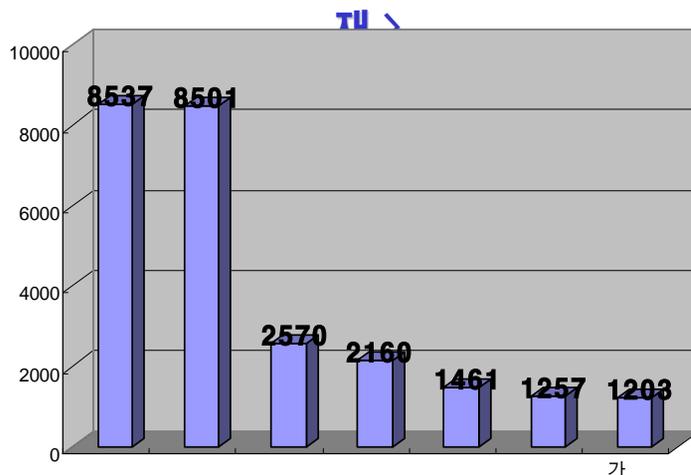
RCA : 가

□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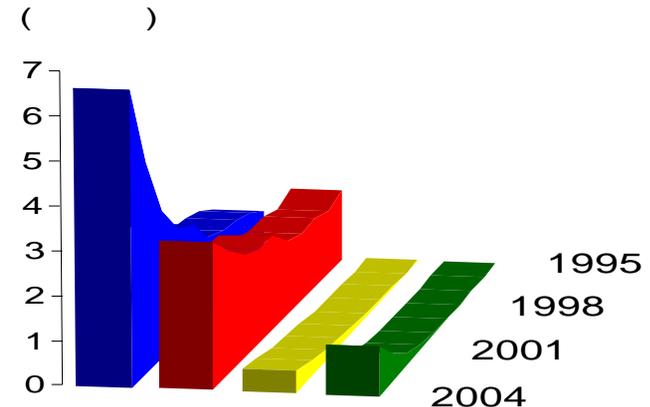
▶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 산업고도화의 핵심요인

- 중국의 산업고도화는 내수시장 및 생산비용의 이점을 활용, 해외 자본과 기술을 적극 유치한 결과로 평가됨 (Gaulier et al., 2005 등)
 - 올해 2월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 1의 외환보유국으로 부상
 - 법인세율: 중국기업(33%) vs 외국인 투자기업(14-15%)
- 중국의 대외교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 중 (95년 39.1% → 04년 57.4%)

〈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06년 2월말 현재 〉



〈 기업형태별 중국의 교역실적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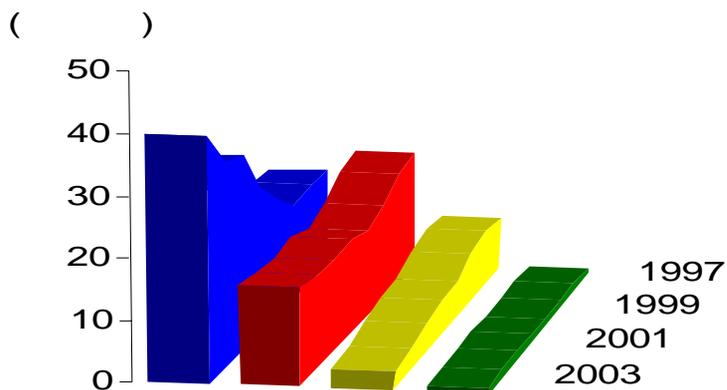


□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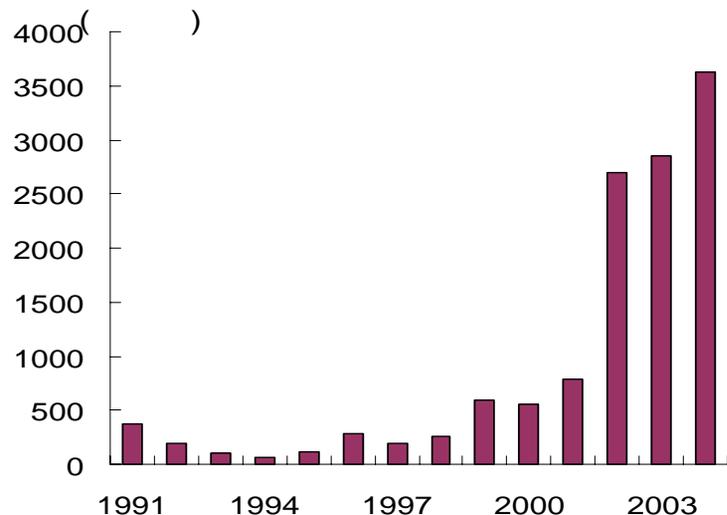
중국은 내수시장 규모에서의 우위, 국내 다국적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확대를 활용, 내부 혁신역량을 빠르게 축적할 것으로 예상

- 아직까지 중국은 저임을 이용한 조립가공에의 의존도가 높은 상태
 - 외국인 투자자도 합자나 합작 형태보다는 외자기업 형태를 선호
- 그러나, FDI 도입 시 기술이전 조건 강화 및 외자기업의 현지 연구개발활동 확대 등으로 중국의 혁신역량은 빠르게 성장 예상
 - 중국은 높은 외화보유고를 이용, 대선진국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기술 및 브랜드 파워를 확보 노력 중

〈 기업형태별 중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연간 투자액) 〉





3. 중국의 부상과 우리나라 산업구조

3.2 한중간 교역구조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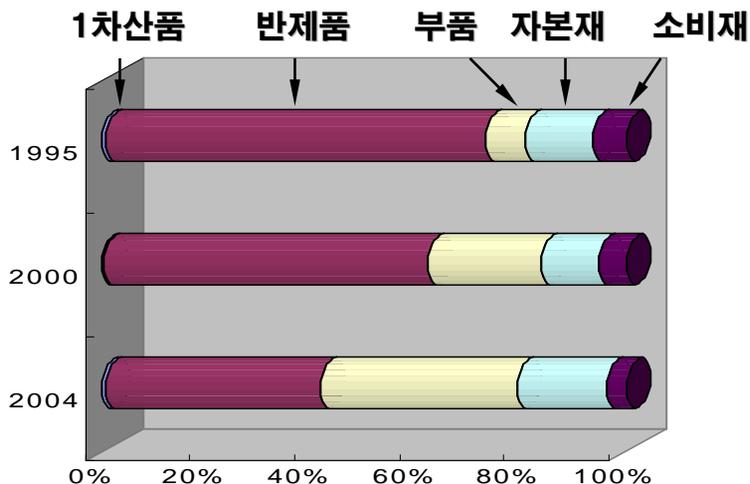
□ 한중간 교역구조의 특징 (1/2)

▶ 양국간에는 수직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교역 구조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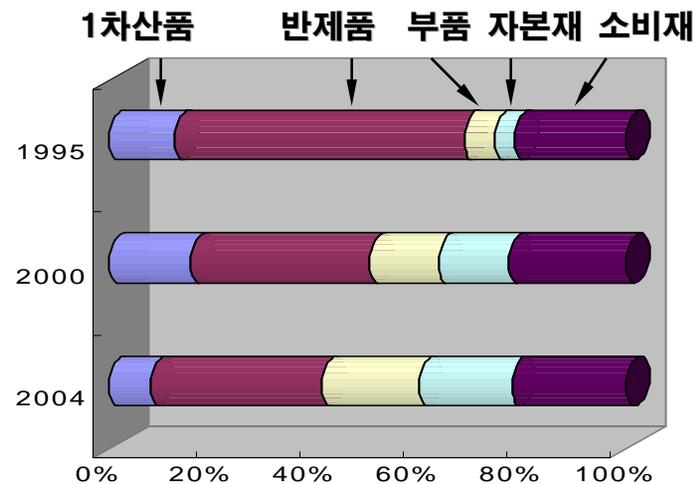
- 대중 수출의 70%가 중국의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및 반제품** 부문 (중국의 해외수출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의 동조현상 출현)
- 양국간 교역은 한국은 반제품 중심에서 부품 및 자본재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등) 위주로 전환 중
- 향후 중국과의 보완적 교역구조 유지 및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수

< 가공단계별 한중간 수출입 구조 >

한국의 대중국 수출



한국의 대중국 수입





4. 능동적 개방전략으로서의 한미 FTA

4.1 한미 FTA의 의의

□ 한미 FTA의 의의 (1/1)

▶ 한미 FTA 추진은 "능동적 개방화" 전략의 일환

- 중국의 부상, 고용 없는 성장 및 제조업 공동화 우려, 고용의 탈공업화와 고부가가치 서비스활동의 중요성 등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해 볼 때,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이 시급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및 FTA의 확산 추세를 고려해 볼 때, 국내 경제주체들의 내부 혁신역량 및 제도개선 만에 의존하는 데는 한계
 - 중국의 고기술 업종 경쟁력 확보의 가장 큰 요인이 **외국인투자를 통해 선진자본과 기술을 능동적으로 유치한 점**임은 시사하는 바가 큼
- 한·미 FTA와 같은 능동적인 개방전략의 채택을 통해 해외의 혁신자원을 흡수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의 추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
- 한·미 FTA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는 향후 일본, 중국 등과의 FTA 체결과 세계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초석



4. 능동적 개방전략으로서의 한미 FTA

4.2 한미 FTA와 산업구조 고도화

□ 한미 FTA와 산업구조 고도화 (3/3)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핵심중간재 경쟁력 제고

- 기계부품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는 국제분업구조 하에서 향후 우리 산업의 위상과 발전을 가능하는 주요한 정책변수
 - 해외의 전문 부품공급업체를 유치하여 중견기업이 부족한 국내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국내 생산·기술혁신체제의 완결성 구축
- 한미 FTA는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통해 동북아 부품소재 공급기지로서의 입지 강화 계기가 될 수 있음
 - 특히, 중국은 향후 급속한 성장세 속에 핵심부품을 수입, 가공하여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유지할 것인 바, 부품소재 수요는 지속적 증가 예상
 - 미국으로의 무역전환을 통해 고질적인 부품소재부문 대일 수입의존 및 무역적자 개선에 기여

[참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1/2)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양자투자협정에서 다루어지는 내국민대우나 투자재산 보호장치 이외의 다양한 제도 개혁 병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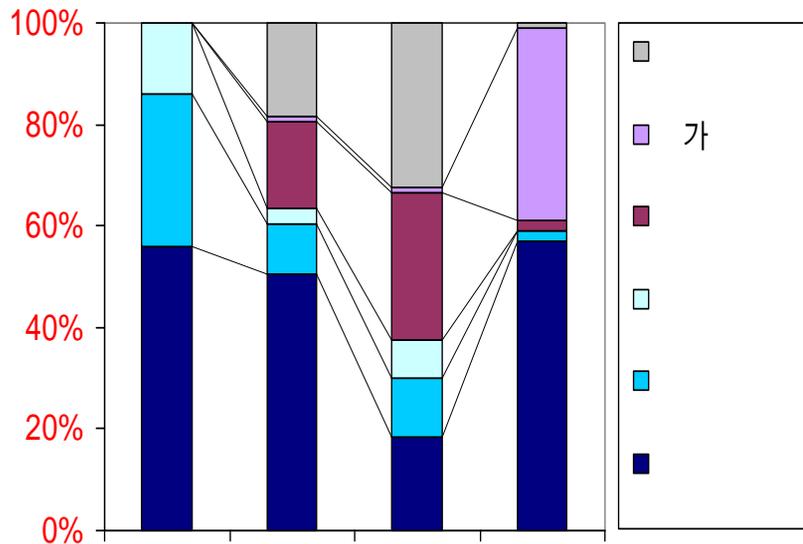
- 한미 FTA 체결이 부품소재 및 기계부문 등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 존재
 - 03년 발효된 한일 양자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이후 일본기업의 직접투자 실적이 과히 호전되지 않은 점을 지적
 - 우리나라는 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한일 BIT 체결 이전에 이미 선진국 수준의 투자보호제도를 마련한 바 있음
- 세계은행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BIT 체결이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던 경우가 빈번

[참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2/2)

KDI의 외국인투자가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시장성, 관련 산업기반 및 기술수준, 인적자원 등에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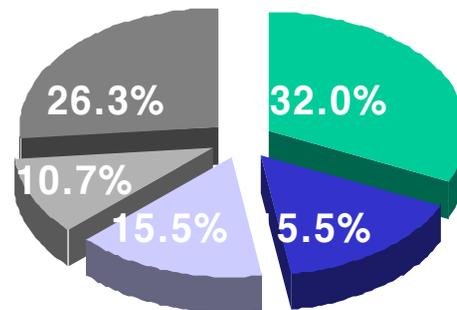
- 반면, 경직적인 노사관계, 인건비 부담, 규제 등의 투자 애로 요인이 존재

국가별 외국인투자관련 경쟁력 비교



가

외국인기업의 기업활동 애로사항



□ 한미 FTA와 산업구조 고도화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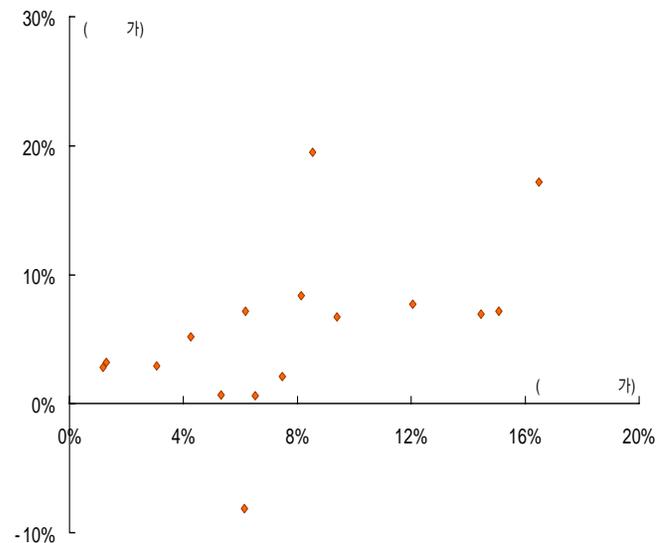
▶ 한·미 FTA는 서비스업의 저생산성 해소에 단초 제공

- 한·미 FTA 등 시장개방은 영세적 시장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 제고 및 시장효율화를 달성하는 구체적 수단 (유통산업의 예)
-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 증가율과 1인당 소득 증가율 간의 정의 상관관계
 - 이는 성장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소득과 고용 증가를 동시에 충족

서비스개방의 효과: 유통시장의 예

- 95년 개방 이후 까르푸, 월마트 등 다국적 유통기업의 진출 및 이에 따른 국내유통업체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유통업체 중심의 선진국형 구조로 변모
- 최근 국내 유통업체는 통 900조원 규모의 중국시장에서 해외 유수의 유통업체와 경쟁 중

서비스업의 1인당 소득 및 고용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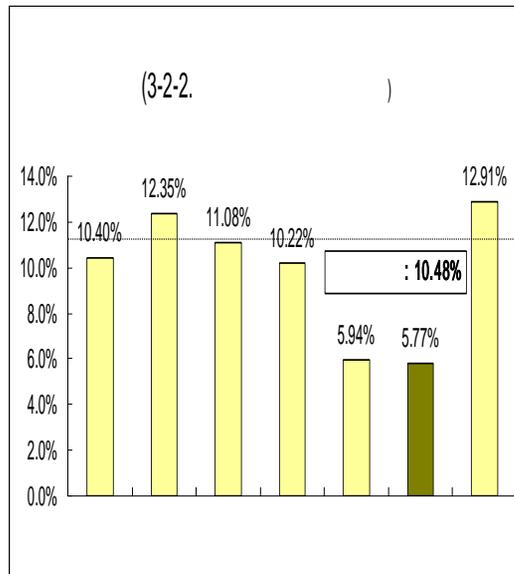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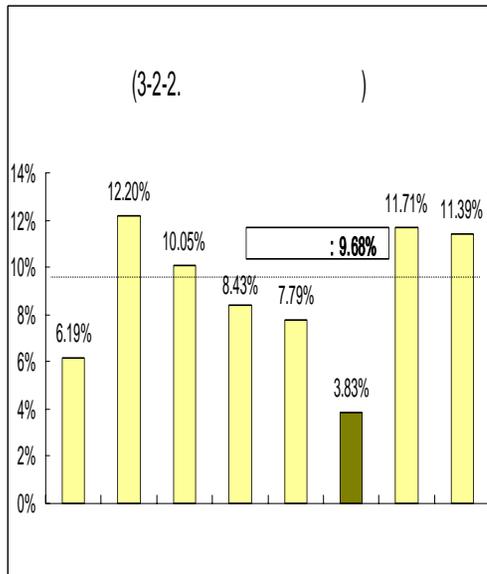


□ 한미 FTA와 산업구조 고도화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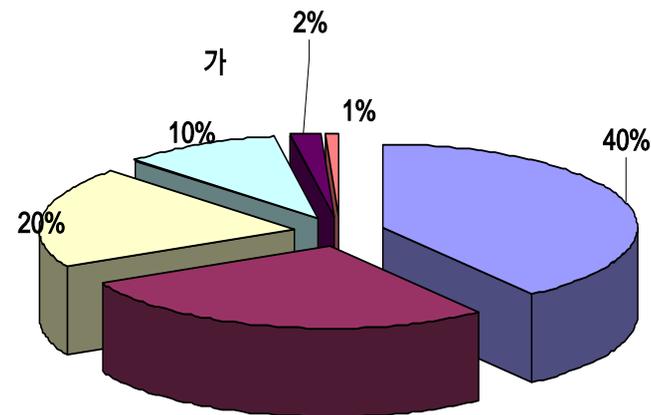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관건은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제조업과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사업서비스의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아 향후 성장성에 기대감이 큼
-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유치는 경영, 법률 등 사업서비스의 수요를 확대
 - 2004년 5309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7.9%의 기업들이 외부 경영컨설팅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 (법률은 85.3%)

사업서비스업의 비중



경영컨설팅 비이용 요인





5. 결론

□ 결론(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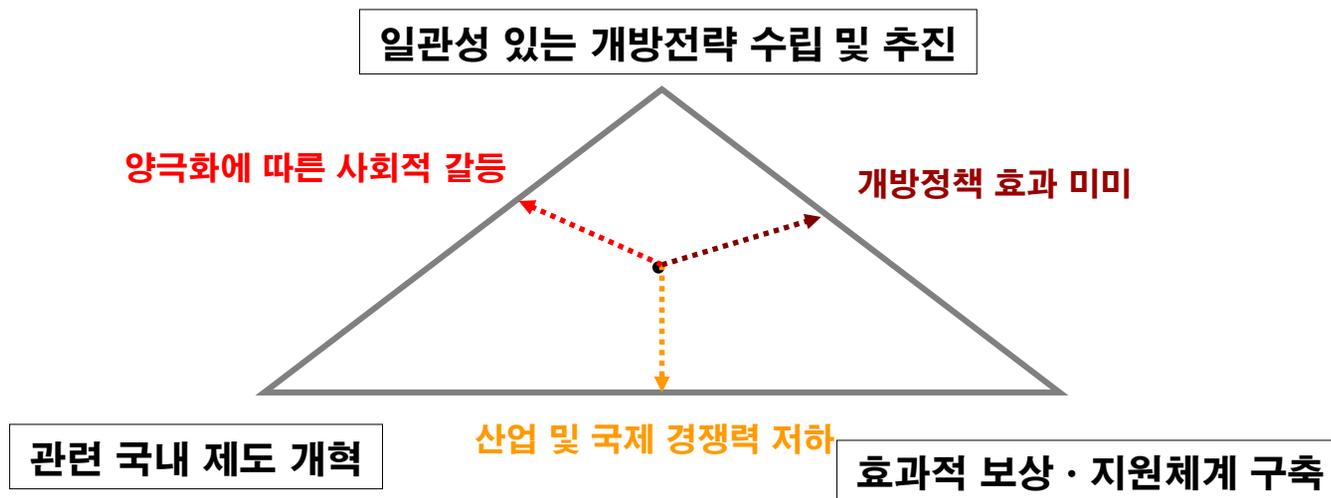
▶ FTA의 적극적 추진은 개방형 통상국가로 나아가는 필수적 관문인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 및 경제·사회구조 구조화의 구체적 정책수단

- 국제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대외지향형 경제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관건은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선순환 구조 구축
 -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 배양,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식 집약적 서비스 육성에 노력
- 한·미 FTA 추진과 동시에 세계 경제 내 우리 경제 및 산업의 현재 위상과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객관적인 진단과 비전 설정을 통해 국내 관련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구

□ 결론 (2/3)

▶ 개방화 전략의 기본원칙

- 한·미 FTA의 기대효과는 FTA 체결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이에 동반한 국내의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일반적으로 FTA 등 시장개방의 효과는 ① 일관성 있는 개방전략 수립 및 추진, ② 관련 국내제도의 개혁, ③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지원체계의 확립 등이 상호 병행될 경우 극대화될 것임



□ 결론 (3/3)

< 산업구조 및 국제통상 여건 >

< 정책 목표 >

< 한·미 FTA의 기대효과 >

